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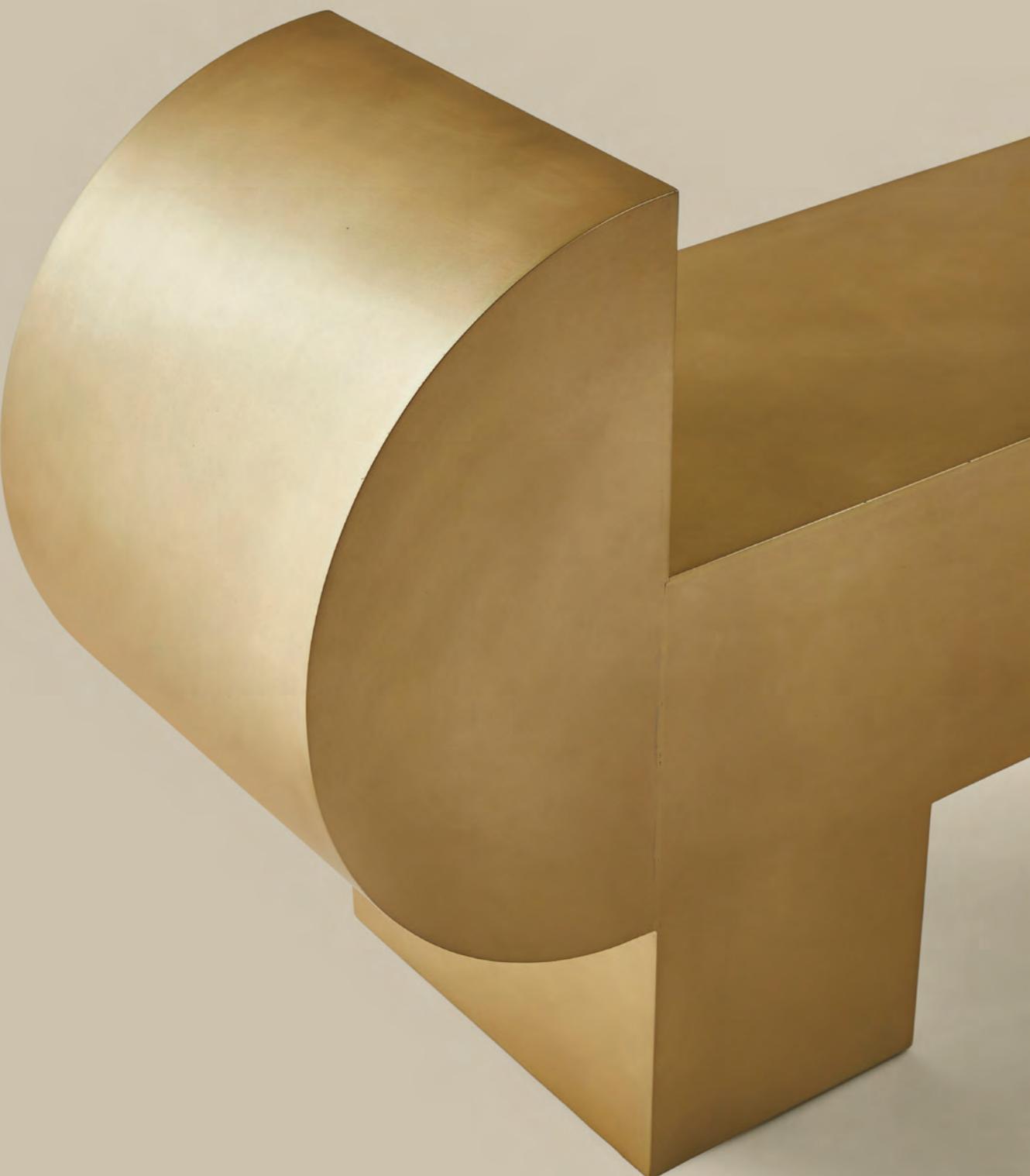
VOL.98

Sulwhasoo

VOL.98 2021

Sulwhasoo

2021





solid bench / 김현성
황동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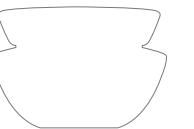
다루기 까다로운 금속을 어루만져 부피와 선이 드러난 황동 가구는 그 형태와 비례가 마치 언어 같다. 가벼이 스치는 말이 아니라 묵직한 무게가 느껴진다. 금속공예가 김현성이 빚어낸 말의 무게는 정중하고 깊다. 예민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금속을 달래고 다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서 길 들인 결과다. 쓰면 쓸수록 정이 들고, 닦을수록 빛을 내는 김현성 작가의 조형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온화하고 아름다움이 쌓인다. 황동이라는 소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혹은 놓인 환경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고 흔적이 입혀지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항균하는 놀라운 능력도 겸비해 황동으로 만든 물건은 쓰임도 좋고 건강하다. 대량 생산으로 찍어낸 물건이 아니라 쓰임을 고민한 흔적을 손길로 그리고, 자연 재료의 물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움까지 담아 김현성 작가의 금속은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순수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에디터 박효성

The proportions of brass furniture, whose shapes and lines are created through the masterful crafting of metals that are notoriously difficult to work with, are like a language—not transient, casual words but weighty, like the decorous “words” crafted by metalworker Kim Hyun-sung. They are the hard-earned outcome of countless repetitive endeavors to tame and shape metal, which is sensitive and not easily bent. Kim’s sculptural language, which shines through the more his artwork is polished and over years of use, grows milder and more beautiful over time. This is because the properties of brass, by nature, change over time, taking on physical traces of the environment or user. Another benefit of brassware is its astonishing self-sanitizing effect, which makes it both long-lasting and healthy. Kim’s brass creations, which differ from mass-produced items in that they reflect the care so obviously invested by the artist in their quality and usefulness as well as the beauty of how brass changes over time, radiate a warm, pure energy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손 끝에서 느껴지는 탄탄한 피부
자음생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GINSENONICS™가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탄력 효과를
선사해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GINSENONICS™, a concentrate that amplifies the powerful energy of the ginseng plant
by over 6,000 times, produces firm skin that is protected from external irritants by improving the skin's density
and resilience and also reduces the appearance of wrinkles.



Sulwhasoo

VOL.98 2021

시간의 지혜로 빛나는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 과거의 한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애에 존재하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자신감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설화수는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하게 빛나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설화수는 진귀한 한방 원료의 피부 효능에 주목해왔으며, 그 연구는 하늘이 선사한 최고의 명약으로서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고려 인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0여 년 연구 끝에 피부에 경이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고려 인삼 속 핵심 효능 성분을 탄생시켰고, 이는 설화수만의 독점적인 주요 효능 성분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설화수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을 접목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합니다. 혁신의 결정체인 설화수 한방과학 연구센터는 고서에 담긴 비방을 현대 과학 기술로 재해석하여 3,912가지 식물 조합의 효능을 검증하고, 여성의 나이에 따른 피부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합니다. 원료의 순도와 효능을 극대화하고 유효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더해 설화수만의 가장 진보한 피부 솔루션을 전합니다.

Sulwhasoo deeply believes that beauty does not deteriorate over time, instead it evolves. At every milestone in life, a new irreplaceable radiance is awoken. Sulwhasoo defies time and reveals healthy and radiant beauty that redefines time and space.

Korean Ginseng, a gift from time, is the rare and delicate traditional Korean ingredient. After 50 years of dedicated and faithful research on the inimitable Korean Ginseng, Sulwhasoo successfully invented an exclusively rare element from Korean Ginseng that transforms the destiny of skins. This exclusive ingredient of Sulwhasoo continues to be refined by time.

Rooted in its genes, Sulwhasoo continues to innovate by infusing wisdom with modern science. Sulwhasoo Heritage and Science Center is conducting the research on transcending the ancient medical method and cutting edge skin science, verifying efficacy of 3,912 complex of herbs, with in-depth research on women's skins of all ages. As a result, Sulwhasoo witnessed the rise of a revolutionary skin care philosophy, led by Korean advanced technology.

Sulwhasoo

VOL.98 2021

펼 치 다

-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깊은 보습이 선사하는 꿈의 피부
- 12
피부 섬기기
주름지지 않는 열정의 뿌리
- 16
공간미감
과거에서 현재로, 아름다움이 흐르다
- 24
新 장인을 만나다
예민하지만 예리하지 않은 그 무엇
- 30
아름다움은 자란다
다시 걷는 날들

발행일·2021년 12월 1일(통권 제98호)
발행인·인세홍 편집인·강병영
발행처·주아이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이수진 김미래)
제품 문의·고객상담팀(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기야 미디어 02)317-4921 편집·박효성 디자인·이경보
사진·GURU visual 02)745-6123 시스템 출력·덕일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강행글윤리위원회의 신의규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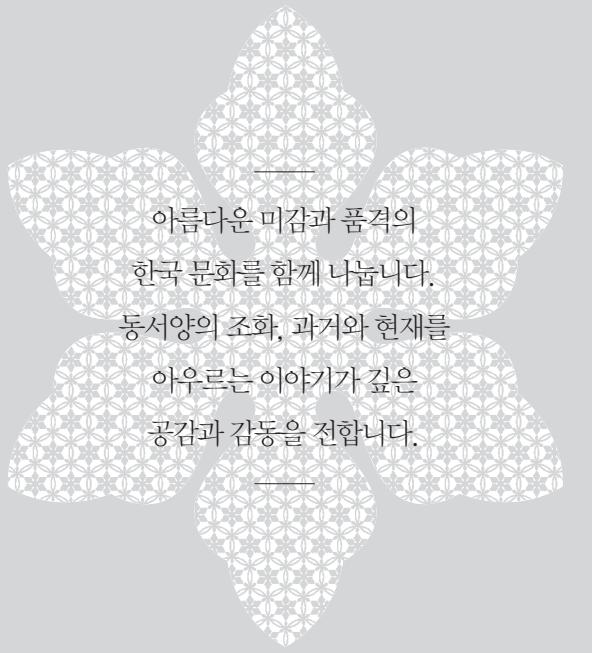
- 38
설화인
유나 양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 46
어우러지다
차분히 차오르는 차의 시간
- 52
설화풍경
장엄하고 고요한 서정
- 56
설화보감
천천히 스미는 발효의 정성
- 62
아름다운 기행
태초의 풍광, 그 극적인 아름다움
- 68
설화수를 말하다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비밀 상자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한땀, 한땀, 고운 삶 누빌래라
- 82
한국의 멋
간결하고 담백한 멋을 차리다
- 84
읽다
구도하듯 담아낸 물체와 빛의 순간
- 88
설화애장
형태 너머, 무궁한 감각의 세계
- 90
집 안 단장
유리의 영롱한 매력
- 92
몸 단장
자연의 정취를 취하다

94
프로덕트맵

페
리
다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합니다.

깊은 보습이 선사하는 꿈의 피부

Achieving dream-like skin through moisture retention

명품 피부를 위한 진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피부가 싫어하는 건조한 환경 대신 꽉 찬 보습과 진정으로 피부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다. 에센셜 컴포트 라인과 함께.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중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바깥의 차가운 칼바람과 실내에서 연신 틀어대는 난방으로 피부는 종일 수분을 빼앗긴다. 다른 계절에 비해 외부 자극이 극심한 겨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 수분을 단단히 채우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면, 두 번째는 편안하게 진정시켜 다시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을 불잡아두는 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보습 원리임에도 누구나 쉽게 완성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설화수 한방과학연구센터는 전통의 지혜와 현대의 과학을 재해석하는 연구를 통해 독보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3,912가지 한방 처방과 1,041개의 약재를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선별해 보습과 진정에 탁월한 다섯 가지 원료를 찾아내고 이를 황금비율로 처방해 '자음보습단™'을 완성했다. 과학적인 한방 솔루션답게 자음보습단™은 총 3단계 컴포팅 보습 케어를 제공해 든든하다.

In the colder months, the skin is robbed of moisture throughout the day due to the icy outdoor wind and indoor heating. This makes dermatological care essential during winter, when external irritants are much stronger than in other seasons. If the first step to beautiful skin is to keep it moisturized, the second and equally important task is to retain that moisture while soothing the skin so that it doesn't dry out again. This most basic principle of skincare, however, is actually not that easy for most people to put into practice. Through research conducted to find new ways of merging traditional wisdom with modern science, the Sulwhasoo Heritage & Science Center produced an unrivaled outcome: JAUM Nourishing Complex™, a solution comprised of a "golden ratio"-based combination of five ingredients (selected via data mining of 3,912 Oriental medicinal prescriptions and 1,041 medicinal herbs) that have superior moisturizing and soothing properties.

As a modern dermatological solution rooted in Oriental medicine, JAUM Nourishing Complex™ is bound to provide a three-step process that keeps the skin comfortable and adequately

자음수

보습과 진정 효능을 처방하는
자음보습단™을 피부에 빠르게
흡수시키기 위한 신뜻한 젤 타입의
스킨이다. 150ml 6만8천원

자음유액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며 부드러운 감촉의
크리미한 로션이 피부 속까지 말끔히
흡수된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펌프
타입이다. 125ml 7만2천원



물의 유기적인 조형성을 응용한 도자 연구를 진행하며 기반적인 형태를 유연하게 담아낸 백자는 신어서 작가.

첫 단계는 외부 자극으로 인한 건조 등의 보이지 않는 미세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다스린다. 마지막으로 피부 본연의 보습 밸런스를 찾아 건강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최상의 보습 케어다. 이처럼 자음보습단™의 충만한 보습과 편안한 진정 효능은 에센셜 컴포트 라인으로 누릴 수 있다. 에센셜 컴포트 라인에서 보습 케어의 초석을 담당하는 자음수와 자음유액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촉촉한 수분을 오래 머금어 속 땅김까지 해결해준다. 보습 케어와 더불어 탄탄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원한다면 피부 탄성력을 강화하는 지선패™가 힘을 보태는 탄력크림을, 더 깊은 보습이 필요할 때는 자음보습단™과 히알루론 성분을 추가한 수분크림을 사용함으로써 건조로 생기는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출시 12년 만에 완전히 새로워진 에센셜 컴포트 라인은 하이포알러지와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에 편안함을 선사하는 저자극 처방까지 완벽하다. S

moisturized. The first step is to reduce the impacts (dryness, mild acne, etc.) of external irritants. The second step involves making dry skin dewy through sufficient moisturizing. The third and final step is advanced moisturizing; in other words, restoring the user's original oil-water balance to make the skin look healthier than it did before using Sulwhasoo products.

The moisturizing and soothing properties that are the hallmark of JAUM Nourishing Complex™ are available in the Essential Comfort line. Essential Comfort Balancing Water and Essential Comfort Balancing Emulsion, which "lay the foundations" for moisturizing, achieve an optimum oil-water balance, which makes the skin able to retain moisture for prolonged periods and thereby resolves the problem of skin that is excessively oily on the surface but dry on the inside. If you want your skin to be firm and smooth in addition to dewy, Essential Comfort Firming Cream can help enhance skin resilience with its JISUN Firming Complex™. To address the problems that arise in relation to dryness, try the Essential Comfort Moisturizing Cream, which is imbued with JAUM Nourishing Complex™ and hyaluronic acid-derived substances. All items in the Essential Comfort line, which has transformed completely since it was first released 12 years ago, are dermatologist-tested and hypoallergenic, making them the ideal way to experience, literally, being comfortable in your own skin.

탄력크림

피부 탄력을 강화하는 지선패™를 기존 대비 2배 담았고, 자음보습단™과의 시너지로 한층 더 강화된 수분 탄력 솔루션을 제공한다. 쫀쫀한 크림 텍스처가 깊은 수분 탄력을 전달한다. 50ml 9만원, 75ml 12만원

수분크림

피부 진정과 보습, 건조 예방의 3단계 컴포팅 보습 케어를 제공하는 자음보습단™을 15배(*탄력크림 대비) 강화하고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보다 깊은 수분을 채워준다.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모공을 막지 않는 젤 크림으로 딥답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로 유지해준다. 50ml 8만원



물의 흐름으로 변화하는 땅의 모습을 인간의 내면에 빗대어 형상화한 작업 중 W.Swan Ceramics는 신이서 작가.

주름지지 않는 열정의 뿌리 The roots of an ageless passion

시간의 흐름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움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인삼을 향한 설화수의 열정과 연구의 결실 덕분이다.
집념의 결정체를 담아 또 한번 진화한 5세대 자음생크림은 안티에이징의 정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글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인삼은 설화수의 근간이자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설화수가 보유한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능은 인삼을 중심으로 무성하게 진화했다. 1966년 ABC인삼크림부터 시작해 2000년 1세대 자음생크림이 출시되고, 2021년 5세대 자음생크림으로 이어진 55년간의 인삼 연구는 가히 독보적이다. 인삼의 핵심 성분을 발견하고, 피부 과학적으로 효능을 규명했으며 한방 소재를 현대 과학으로 연결시키는 과업을 이뤄냈다. 특히 고려 인삼이 가진 풍부한 사포닌이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진세노믹스™는 설화수 한방과학연구센터의 독자적인 기술로 이뤄낸 안티에이징의 핵심 성분이다. 인삼 1,000g에서 오직 1g만 얻을 수 있는 희귀 사포닌을 발견했고 이를 설화수만의 바이오 기술로 6,000배 이상 증폭시킨 활성 뷰티 사포닌으로, 이 강력한 유효 성분인 진세노믹스™가 피부 노화의 근본을 다스리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진세노믹스™의 안티에이징 효능은 자음생크림을 통해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다.

Ginseng is Sulwhasoo's most foundational ingredient and the root of the beauty that is created by many of its products. The company's anti-aging technology has evolved many times throughout the past few decades based on its knowledge of the properties of ginseng. Starting as ABC Ginseng Cream, which was released in 1966, the "first-generation"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appeared on the market in 2000. Sulwhasoo's research on ginseng over the past 55 years, culminating in the fifth generation of this cream in 2021, is unrivaled in the global cosmetics industry: by discovering the key component of ginseng and objectively proving its efficacy for the skin, the company achieved the challenging feat of establishing a connection between ingredients used in Oriental medicine and modern science. The biggest example of this is GINSENOGENICS™, an anti-aging complex created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of saponin, of which Korean ginseng has the highest concentration, for the skin, using the independently-developed technologies of the Sulwhasoo Heritage & Science Center. GINSENOGENICS™ is highly effective in addressing the causes of visible skin aging and is a powerful





숲길 작업실에서 만난들을 질료로 작업하는 금속 오브제는 포包, 브라스 소재 Tea Leaf Plate는 멜피

New 자음생크림

활성 뷰티 사포닌 진세노믹스™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능을 담아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탄력을 실현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강인한 피부 자생력으로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탄력을 선사하고, 바르는 순간 부드럽게 밀착되어 24시간 탄력이 유지되는 효과와 함께 쫀쫀한 탄력감과 수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부드럽고 산뜻한 제형에 인삼꽃 향이 담긴 '소프트'와 영양감이 풍부한 제형에 인삼 향이 은은한 '클래식'으로 구성된다.

30ml 15만원 60ml 27만원

2000년 출시 이래 설화수의 스테디셀러로 사랑받는 자음생크림은 6년 연속 럭셔리 안티에이징 크림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5세대 자음생크림으로 진화하며 한층 강력해졌다. 인삼의 생명력을 놓축한 진세노믹스™는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탄력을 실현해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피부를 경험하게 한다. 피부의 활력을 되살려 다양한 외부 자극과 변화에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로써 더 강인한 피부를 완성해주는 것 또한 진세노믹스™의 힘이다. 실제 만 30~60세 여성 31명을 대상으로 한 자가 평가 결과, 83%의 사용자가 24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가 유지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탄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진세노믹스™에 진생펩타이드 성분을 더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였다.

5세대 자음생크림은 선호하는 향과 사용감에 따라 **소프트**와 **클래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새롭다. '소프트'는 가볍고 산뜻한 제형에 상쾌한 인삼꽃 향을 담고 있고, '클래식'은 풍부하고 영양감 넘치는 제형으로 인삼 향이 은은하다. 바르는 순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피부 탄력을 느끼며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자음생크림은 누구도 설불리 따라 할 수 없는 안티에이징의 정수이자 정점이다. S

ginsenoside created from a very rare type of saponin (with 1,000 grams of ginseng being needed to make just one gram), the effect of which has been amplified by over 6,000 times using Sulwhasoo's signature biotechnologies. The product that offers the greatest anti-aging benefits of GINSEONOMICS™ is the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which has been one of Sulwhasoo's most beloved steady sellers for two decades and was named the No. 1 anti-aging cream for six consecutive years (based on domestic sales data in Korea, 2015-2020; Beaute Research Korea), is back in 2021 in its fifth and most effective version. GINSEONOMICS™, a ginseng-based concentrate, helps you create firm, supple skin through a triple resilience-boosting mechanism that replenishes, supports, and strengthens. It makes the skin stronger by invigorating its vitality and boosting its ability to proactively respond to diverse external irritants and changes. In a clinical study conducted by Sulwhasoo on 31 female respondents between the ages of 30 and 60, 83 percent responded that their skin felt suppler 24 hours after using the cream—an accomplishment that can be credited to the addition of ginseng peptides to GINSEONOMICS™ to maintain skin tautness.

Another noteworthy feature of the 2021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is that it is available in two versions based on fragrance and texture: the "EX" feels light and refreshing upon application and has a ginseng flower scent, while the "Classic" has a thicker texture and subtle ginseng scent.

From the moment it is applie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offers an unprecedented level of skin firmness. It is the quintessence and pinnacle of anti-aging cosmetic care, and other companies will be hard-pressed to imitate it.



과거에서 현재로,
아름다움이 흐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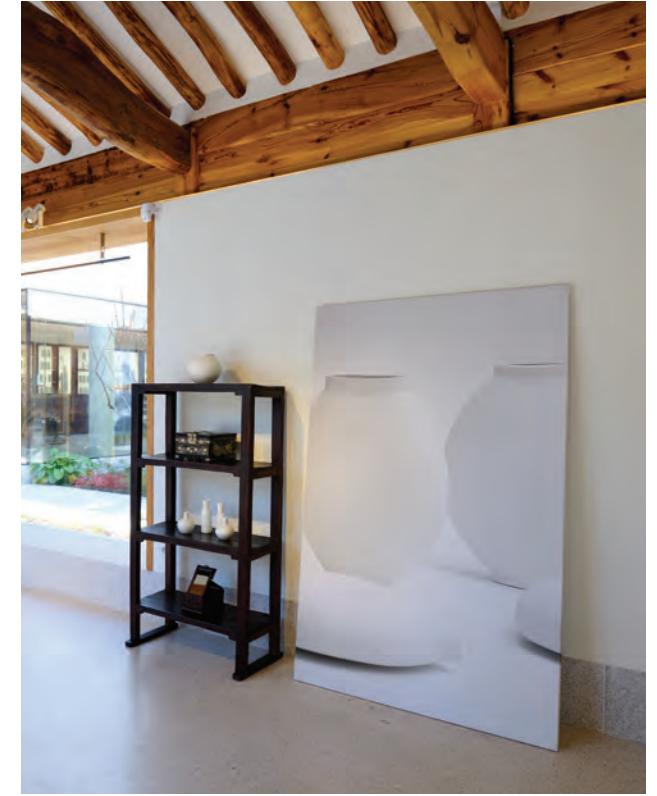
Sulwhasoo Bukchon

설화수 북촌

시원한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버선코마냥
날렵하게 치켜 올리간 처마 끝에 걸린 조각구름을
바라보던 기억. 한옥이라는 단어에 여름방학,
외갓집이라는 기억이 겹쳐 자연히 생겨나는 이미지다.
공간에 깃든 감정과 추억은 긴 시간이 지나도 문득,
생생하게 살아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한옥과 양옥이 만난 설화수 북촌의 시작은 한옥의 응접실이다. 설화수의 환대와 함께 손을 씻고 단장을 마치면 아름다움을 향한 여정을 출발한다.

서울에서 한국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많은 곳들이 있지만, 옛 시절을 살았던 이들의 주거 문화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북촌도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일 것이다. 북촌은 조선시대에 조성된 양반층 주거지로, 그 모습이 192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이후 1930년대 서울의 행정구역이 확장되고 도시 구조가 근대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주택 경영 회사들이 북촌의 토지를 매입해 중소 규모의 한옥을 대규모로 건설했는데, 지금 한옥이 밀집한 가회동과 삼청동, 계동 일대가 그때 생겨난 것이다. 전통 한옥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대청에 유리문을 달는 등 새로운 재료로 주거 편의성을 더했다. 즉 근대적인 도시 생활 양식에 적응하여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진화한 한옥이 등장한 것이다.

북촌에 새로 자리한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코로나19로 그 많던 관광객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가회동 일대, 북촌은 아름다운 단풍과 함께 고즈넉한 정취로 가득하다. 재동초등학교를 지나 북촌한옥마을 초입에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설화수 북촌(Sulwhasoo Bukchon)’이 새로 문을 열었다.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은 설화수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이다.

전통과 현재가 아름답게 조화하는 북촌은 ‘Beauty From Culture’란 문화 메세나 활동을 이어온 설화수의 철학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이번 플래그십은 한옥에서 양옥, 정원에 이르는 약 300미터의 공간을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여정’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다. 1930년대

Inhabited by members of the upper-class in the Joseon dynasty, Bukchon maintained its pre-modern appearance until the 1920s. It began to change, however, in the 1930s, when Seoul's administrative districts were expanded and the city's layout was modernized.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purchased land in Bukchon, on which they built many small/medium-sized hanok—the traditional houses that are visible today and concentrated in the Gahoe-dong, Samcheong-dong, and Gye-dong districts. These houses retain the defining traits of a hanok while also bearing features that provide modern-day conveniences (e.g. glass doors for the daecheong maru (open wooden hall in the center of a hanok)—in other words, they are a modified hanok that has become a housing category of its own that accommodates the modern urban lifestyle.

The new Sulwhasoo flagship store in Bukchon

Bukchon is now home to Sulwhasoo Bukchon, a flagship store that stands at the entrance of Bukchon Hanok Village, just past Jaedong Elementary School. It is the brand's second flagship store after its first on Dosan-daero.

A tasteful amalgam of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culture, Bukchon's philosophy dovetails with that of Sulwhasoo, which has engaged in “Beauty from Culture”-based cultural activities for the past few years. One interesting aspect of the store is that the 300-square-meter space, which includes a



에 지은 한옥과 1960년대에 지은 양옥을 하나로 연결하여, 각각의 공간을 지나는 동안 설화수의 역사와 전통, 설화수만의 미감으로 발견한 동시대의 아름다움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게 기획했다. 특히 북촌 설화수의 건축은 원오원 아키텍츠의 최우 소장이 맡아, 격조 있는 한국적 미감과 주거 문화를 충실히 구현했다.

벗의 아름다운 집을 거닐다

북촌 설화수는 ‘설화수’라는 브랜드를 ‘전통의 미감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특별한 취향의 동시대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그녀의 집을 꾸미듯 공간 구성을 했다. 고객은 남다른 감각을 가진 친구(설화수라는 이름의) 집에서 그녀의 세계관과 취향이 묻어나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북촌 설화수는 크게 두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1930년대에 지은 한옥과 1960년대에 지은 양옥이다. 한옥은 ‘Beauty of Sulwhasoo’로 꾸며 특별한 뷰티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양옥은 ‘Sulwhasoo Studio’로 메인 리테일 스토어와 휴식 공간으로 구성된다.



설화수의 시그니처 상품인 윤조에센스와 조선 백자가 융화된 윤조백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와 설화수의 전통을 담은 ‘미전설’.
메이크업 상품이 마련된 단장실로 한옥 공간이 이어진다.

hanok, Western-style building, and garden, was designed to offer a “journey” in which beauty is the final destination rather than a short-term goal. The 1930s-built hanok and 1960s-built Western-style building are conjoined, with each space giving visitors an interactive experience of Sulwhasoo’s history, traditions, and ideals of contemporary beauty that reflect the brand’s aesthetic. The construction of Sulwhasoo Bukchon was overseen by Director Choi Wook of ONE O ONE architects, through which the store was made to embody the elegance of the traditional Korean aesthetic and housing culture.

Exploring a friend’s beautiful home

Sulwhasoo Bukchon was designed to be a personification of the Sulwhasoo brand as a “contemporary woman with unique tastes who discovers value in a traditional aesthetic,” with its indoor spaces structured and furnished as the private home of this woman. Customers are visitors to the home of a friend named Sulwhasoo, where they experience content that embodies the worldview and beauty preferences of Sulwhasoo.

Sulwhasoo Bukchon is made up of two main parts: a 1930s hanok and 1960s Western-style building. The hanok, whose theme is “Beauty of Sulwhasoo,” offers a unique beauty experience. The Western building, “Sulwhasoo Studio,” has a retail store and space for relaxation.

The window gallery, a visualization of our first impression of Sulwhasoo, is a beautiful gate that introduces the visitor to the brand. After passing through the inviting atmosphere of the gallery, one reaches reception room. Visitors are served ginseng dalgona at the Welcome Desk: after finishing this delicious snack, they can wash their hands at the sink. The Workshop shows, in a creative way, the process by which “Yunjo White Porcelain,” an amalgam of a signature item of Joseon ceramic art



한옥을 지나 양옥 공간에 이르면 북촌 전용 상품을 비롯한 설화수 제품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난다.
그 위에는 책과 음악, 감각적인 소품들로 구성된 '설화 살롱'에서 지적인 아름다움을 접할 수 있다.

설화수의 첫인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윈도 갤러리는 아름다운 대문처럼 인트로 역할을 한다. 따뜻한 응대를 받으며 응접실에 이른다. 웰컴 데스크에서 건넨 달콤한 인삼 달고나로 기분 좋은 리추얼을 경험하고, 세면대 뒤에서 손을 정결히 씻는다. ‘공작실’에서는 조선의 미학을 대표하는 백자와 설화수의 시그니처 상품인 윤조에센스가 융화된 윤조백자가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전통미가 담긴 다양한 소품으로 꾸며진 ‘미전실’을 지나 꾸밈의 공간인 ‘단장실’에 이른다. 단장실에서는 다양한 메이크업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실란 컬렉션에 깃든 장인의 전통 문양과 기법이 마음을 끈다. 이제 중정을 지나 양옥에 들어선다. 양옥은 리테일 공간으로, 북촌 전용 상품을 비롯한 설화수 제품군과 고아한 포장인 ‘지함보’를 만날 수 있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한국의 미감이라면, 무심히 감싸 물건을 보호하는 보자기만큼 한국적인 것이 있을까. 천과 천이 겹쳐서 이루는 흐르는 듯한 주름과, 의도하지 않은 배색의 기품이 지함보에 깃들어 있다. 계단에 올라 양옥 1층에 이르면 ‘설화 살롱’이 나타난다. 설화수의 취향을 저격한 글, 음악, 소품이 감각은 물론 지적 호기심을 충만하게 한다. 1960년대 지은 양옥인 만큼 당시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도 가득하다. 설화 살롱 앞에는 6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낸 향나무와 석탑, 석등으로 이루어진 우아한 정원이 산책을 권한다. 북촌 설화수는 좋은 취향과 섭세한 큐레이션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산 우리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공간이다. ‘설화수’라는 사람이 있다면,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 벗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삶에 격조를 더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하겠으나. S

and a signature item of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was born. The Mijeonsil, which features various objects that reflect traditional Korean characteristics, leads to the Danjongsil, a “powder room” of sorts that offers a wide range of cosmetic products for visitors to try out. The traditional designs and craftsmanship of the items in the Shineclassic collection are especially worth a look. Once the visitor passes into the Western building, they will see a space for retail shopping, which features items exclusive to Sulwhasoo Bukchon and a special Sulwhasoo packaging called “Jihambo.” Jihambo uses not wrapping paper but bojagi (traditional Korean scarf-like wrapping material) to achieve a natural, unfettered look that many consider to be the hallmark of the Korean aesthetic. The pairing of crisply-folded white fabric and tasteful, colorful decorations enhances the beauty of Sulwhasoo’s products.

The second floor of the Western building is the Sulwha Salon, which is furnished with writings, music, and objects with which we at Sulwhasoo were captivated by. Because the building dates back to the 1960s, it also offers an experience of trends and daily life of that time in Korea. In front of the Sulwha Salon is a garden (perfect for walking!) with a juniper tree that is over 60 years old, a stone pagoda, and a stone lantern.

Sulwhasoo Bukchon is a space that reflects good taste, sophisticated curation, and the diversity of our lives. It makes us think that if Sulwhasoo were a person, it would be someone we want to be good friends with—even if it meant that we would have to make some major changes to refine the quality of our lives.



예민하지만 예리하지 않은 그 무엇

Kim Hyun Sung

김 현 성 금 속 공 예 가

그가 만든 주방용품이나 촛대, 심지어 육중한 의자까지 그 모두가 뭉툭한 편이다.
하지만 그 투박함 속엔 특유의 예민함이 숨어 있다. 그건 정교한 마감 때문일 수도 세상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
그는 딱딱하고 무겁기 그지없는 활동 덩어리를 수없이 연마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의 작업실 밖 자연의 풍광은 그런 그를 시간 날 때마다 같은 강도로 연마한다.

글 최태원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다양한 소재 가운데 특별히 금속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귀금속 세공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지 싶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금속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 영향으로 중학교 때는 기능 대회 참가를 고려했을 정도였거든요. 익숙한 것은 편하고, 편한 것은 수용이 용이하니까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누나도 금속공예를 한 적이 있으니, 금속을 다루는 일은 일종의 저희집 가풍인 셈이네요. 대학 진학 후 홀륭한 교수님을 만나는 등 주어진 환경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에 쓰인 금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주로 비철금속 중 하나인 동이나 활동을 씁니다. 마감 처리를 했을 때, 다른 소재들보다 저에게 주는 정서적 중량감이 더 커서 선호합니다. 다만 이 소재들은 수축과 팽창의 정도가 심해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소재들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죠. 소재가 작가에게 오기

Of all the materials you could have chosen, why did you choose metal in particular? It is most likely due to the influence of my father, who still works in jewelry crafting. I grew up watching my father working with metals from a very young age. I was so influenced by his work that I seriously considered competing in a vocational skills contest when I was barely in middle school. What's familiar is comfortable to be around, and what is comfortable to be around is easy to absorb. My older sister, who is in a different line of work now, had also worked with metal crafts for a time. I guess working with metals is my family tradition of sorts. Much of my decision was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having met a wonderful professor at a college

What kinds of metals do you use for your artworks? I usually use a nonferrous metal like copper or brass. I prefer them because when

를 갖게 하는 거죠. 요즘 많은 작가들이 새로운 소재 연구에 몰두하는데, 저는 이 클래식한 소재에서 아직도 발견할 구석이 많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작업의 출발점은 식기류였더군요.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호구지책이 되겠느냐?’는 비관적 말이었죠. 여봐란 듯이 해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첫 선택이 커피 드리퍼였는데 성공적이었어요. 판매가 잘 된 이유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단지 작업물에 작가의 얘기나 생각을 육여 넣기보다는 갤러리 관계자나 마케터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물건이란 어떤 것인지,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작업 대상에 변화가 있었더군요. 열전도율이 높은 구리 드리퍼 같은 식기류를 10년 이상 만들어왔는데, 그런 생활용품의 경우 규칙을 벗어나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요. 이런 작업의 제한에서 벗어나 제가 추구하는 형태와 질감을 마음껏 표현하고, 시각적 메시지를 주는 물건을 만들고 싶어서 작업 대상을 확장했던 것이죠. 그 첫 시도가 촛대였습니다. 촛대란 것이 초를 꽂는 부분만 있으면 나머지 형태는 자유로워서 제가 추구하는 볼륨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한 3년 전부터 의자 같은 가구에까지 손을 대게 된 겁니다.

전시회에서 본 가구의 디자인이 미니멀하다고 느꼈습니다.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는 나뉠 테지만 저는 제 작품이 장식적이지 않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미니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멀한 형태에서 반 발자국 정도 벗어난 형태라고나 할까요. 물론 착상 단계에서부터 실용성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에 좌좌寇은 배려의 항목이 아니었죠. 추후에는 앓기 편한 의자도 시도할 생각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의자들이 전철역 플랫폼 같은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대중이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아닌 특별한 오브제를 공적 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금속으로 사이즈가 큰 작업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틀이 전혀 다른 면도 있지만 시장도 너무 달라서 처음 시도할 땐 ‘내가 이걸 만들어도 될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기더군요. 물론 용접 같은 부분들은 크루들

putting on the finishing touches, they give me more “emotional weightiness” than other materials. I do, however, realize that non-ferrous metals are very difficult to work with as the extent to which they contract and expand is imm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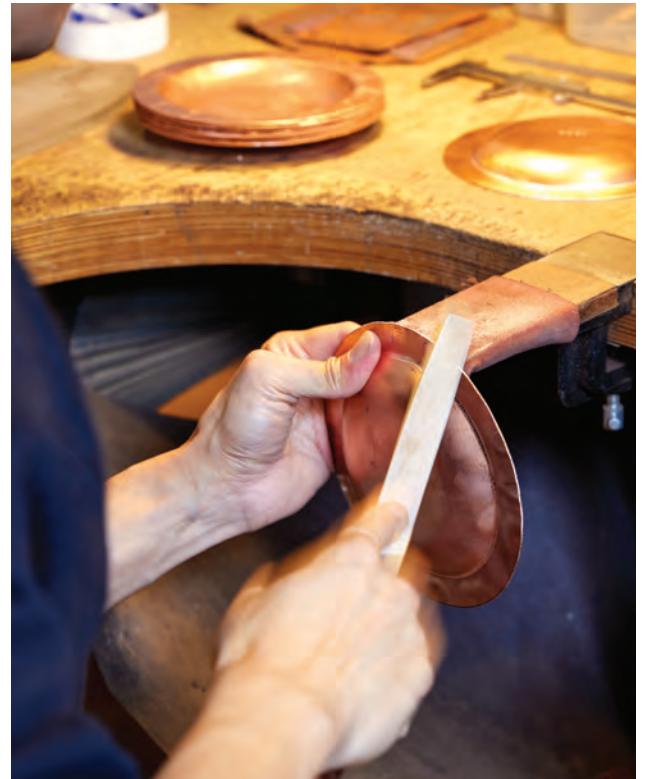
You began by making tableware. When I started out as a full-time artist, the most frequently asked question was whether I would be able to make a living from art. This instilled in me the desire to achieve both maturity of craft and a stable livelihood. Fortunately, my first creation, a coffee dripper, was a success. I cannot explain why it sold well. I can, though, credit the success to my insistence on not unilaterally forcing my story or philosophy into the creation but rather communicating often with art gallery representatives and marketers on a number of issues, such as what constitutes a good product and what consumers need.

The subject of your creative endeavors has changed. I made food and beverage utensils, including a highly heat-conductive dripper out of copper, for over 10 years. One thing about everyday items is that if you deviate even slightly from the rules, the object will lose its ability to function. I decided to broaden my creative range because I wanted to be free of such restrictions and have an opportunity to make things in the shapes and materials that I want and imbue them with poetic messages. My first attempt at restriction-free creation was a candle holder, which was a good start because, as long as there is a place to put the candle in, everything else about the format and design is up to you. I enjoyed giving the candle holder a “voluminous” look, which is a preference of mine. More recently, I’ve been making furniture, mostly chairs,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furniture I saw at one of your exhibitions seemed to follow a minimalist style. I’m sure everyone has their own set of standards by which they judge my work. While I agree that my creations are not “decorative,” I do not think they are minimalist. A better way to describe them may be “a half step away from normal.” Because I try



금속 식기류를 10년 이상 만들었던 김현성 작가는 시각적 메시지를 주는 물건을 만들고 싶어 촛대와 가구 등 볼륨감이 있는 작품들로 작업을 확장했다.



주로 사용하는 소재는 비철금속 종류인 동이나 흉동이다. 마감 처리를 했을 때 정서적 중량감이 커서 선호하는데 수축과 팽창의 정도가 심해 다루기는 까다롭다.

의 도움을 받지만, 연마는 온전히 제가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힘은 들지만 가구 작업을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는 소득을 올린 셈이죠.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이번 도전이 큰 의지가 되겠죠. 하지 않았던 일에 성공한 이력이 생겼으니까요.

작가로서 영감을 받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여기 가평으로 내려오기 전, 서울에서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이 답이더군요. 반려견 달리와 함께 풍경 속을 산책하는 시간은 친환경 회복시키는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런 일상의 루틴 속에서 요즘 제가 발견한 대상이 '새'입니다. 우연히 박새가 우체통에 튼 둥지를 발견했는데, 나뭇가지와 달리의 털로 만들었더군요. 그때부터 새에 시선이 꽂혀 올해 내내 새들을 관찰하고 있어요. 새의 형태나 습성이 제 작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진 않겠지만 그런 발견들이 작가로서, 또 한 인격체로서 저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겁니다.

to disregard practicality from the brainstorming stage, whether the chair will be comfortable to sit in is never a matter of concern. I am, however, thinking about making comfortable chairs later on that hopefully will be installed in places like subway platforms.

It must be difficult to work on a large artwork made of metal. When I first tried this type of artwork, I doubted whether I'd be able to finish it. The tools were completely different, as was the market, compared to those for smaller metallic works. I usually get help from my crew for things like welding. However, I have to do the grinding and polishing on my own, which is not easy—even now. It's hard, but furniture making has expanded both the scope of what I'm capable of as well as my income. My success with furniture—an instance of succeeding in something I had never done before—is an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반드시 이런 작품을 만들겠다, 혹은 이런 작가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보다는 전업 작가로서 주어진 작업에 전념하는 편이 행복하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작은 바람이 있다면, 가구 작업을 시작한 뒤 개인전을 연 적이 없어서 내년엔 전시회를 열까 합니다. S

experience that will carry me through future new endeavors.

When are you inspired, as an artist? When I lived in Seoul, before moving to Gapyeong, I never had peace of mind. Whenever I need breathing space (literally and figuratively), nature is the answer. The time I spend taking walks in the beautiful outdoors with my dog, Dolly, helps me recharge very quickly.

What will you be doing career-wise in the short (and/or long) term? It occurred to me that, rather than lofty plans or goals, I would be much better served by finding joy in devoting myself to the day-to-day tasks of being a full-time artist. One small goal that I would like to act on in 2022 is to hold an exhibition, as I haven't held any since I started making furniture.

다시 걷는 날들

Resuming my neighborhood walks

백 수 린

여성의 모든 생애에 존재하는 본연의 아름다움을 당당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설화수의 마음이다. 아름다움은 시간이 축적되는 만큼 깊이 있게 펼쳐지기 때문. 소설가 백수린이 느릇느릇 걸으며 쌓아가는 아름다운 시간과 눈길 또한 매일매일 자란다.

사진 이종근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여행지에서 걸을 때와 서울에서 걸을 때 나의 태도는 꽤 다르다. 여행지에서 나는 지도를 잘 보지 않는다. 워낙 심한 방향치라 길을 잃을 것이 필연적인데 크게 걱정하지도 않는다. 길을 잃고 혼매다 만나게 되는 뜻밖의 풍경들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처럼 천진해지기 때문이다. 보물찾기를 하는 아이처럼, 겁 없는 탐험가처럼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기꺼이 성큼성큼 지도 밖을 걷는다. 운동화 밑창이 닳고 다리가 아파 올 때까지. 헤어질 시간을 미루느라 집이 코앞인데도 일부러 골목을 배회하는 애듯한 연인들처럼 목적지에서 멀어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웃거리며 혼매다.

하지만 서울에서 나는 반대로 길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된다. 언어가 통하니 길을 잃는다 해도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만 하면 해결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 이 도시에서 내가 지도 앱에 목적지를 입력한 후 휴대전화를 보느라 고개를 끙 숙인 채 걷고, 집 앞 편의점에 가거나 산책할 때조차 이미 걸어본 길로만 걷는 건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라는 걸 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바쁘고 한눈을 팔지 않으니까. 잠깐 멈춰 서면 뒤에서 걸던 사람에게 부딪치거나 깊은 소리를 듣기 일쑤니, 나 역시 덩달아 서두르게 되는 것이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 들이면 최적화된 동선을 가르쳐주는 앱이 있는데 굳이 혼매다니.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덕목인 세상에서 그런 수고로움과 고단함을 기꺼이 택한다는 건 어쩐지 어리석게 보일 것만 같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다시 길을 잃어보기로 했다. 사랑하는 존재를 느닷없이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던 내가 일상을 다시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 스스로 내린 처방이 그것이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대충 요리를 한 후 운동화를 구겨 신고 집 밖으로 나섰다. 동네를 산책하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정해놓은 규칙은 단 하나. 갈림길이 나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택해 발걸음을 옮길 것. 그런 식으로, 평소에 즐겨 걷던 잘 정비된 산책로가 아닌 좁고 어지러운 골목들을 걸으면서 나는 슬픔을 조금씩 덜어냈다. 저층의 빌라들이 빼곡한, 가득이나 좁은데 세워둘 공간이 없어 불법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더욱 어수선한 골목들이었다. 한쪽에선 재개발 동의서를 받는다며 현수막을 붙여놓은 풍경이 심란해 나는 평소 그 골목들을 일부러 피해 큰길로만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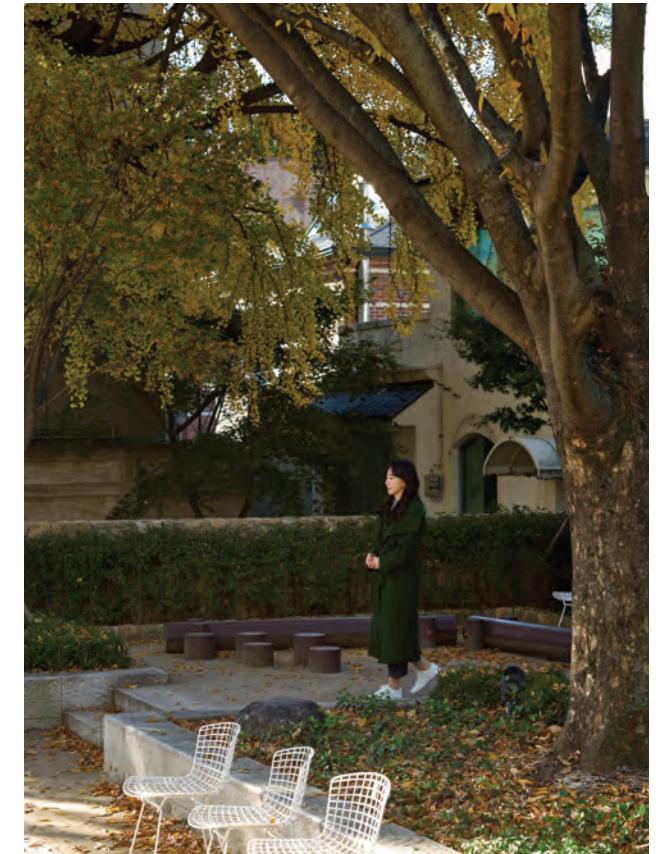
그런데 지도 앱도 켜지 않고 처음 걸어본 골목들은 뜻밖에도 심란함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각양각색의 꽃 화분들을 오밀조밀하게 창가에 올려놓은 수선집(시다 구함)이라고 크게 적혀

I like to walk. The way I walk when I'm on vacation and the way I walk in Seoul are very different: at a travel destination, I almost never consult a map. Despite the inevitability of losing my way due to my complete lack of a sense of direction, I don't worry about where I'm going, because I enjoy taking a child-like wonder in the places I encounter after getting lost and trying to get back on track. Like a child on a treasure hunt or a fearless explorer, I confidently walk outside of the map's boundaries until the soles of my shoes wear out and my legs start to ache, driven solely by curiosity and the expectation of finding something interesting.

In Seoul, however, I turn into someone who is constantly worried about getting lost, even if I know full well that the absence of a language barrier allows me to ask anyone for help if I do happen to lose my way. In this city, I walk from one place to another with my gaze fixed on my smartphone, because I need to follow the directions provided by the map app. When going to the convenience store across the street or on a walk, I take only well-traveled roads because I do not want to waste time-like the majority of the busy, singularly-focused people who inhabit Seoul. If you stop for a moment while walking, chances are that the person walking behind you will bump into you. Therefore, to avoid being derided by a stranger, I find myself quickening my pace to match the footsteps of the person in front of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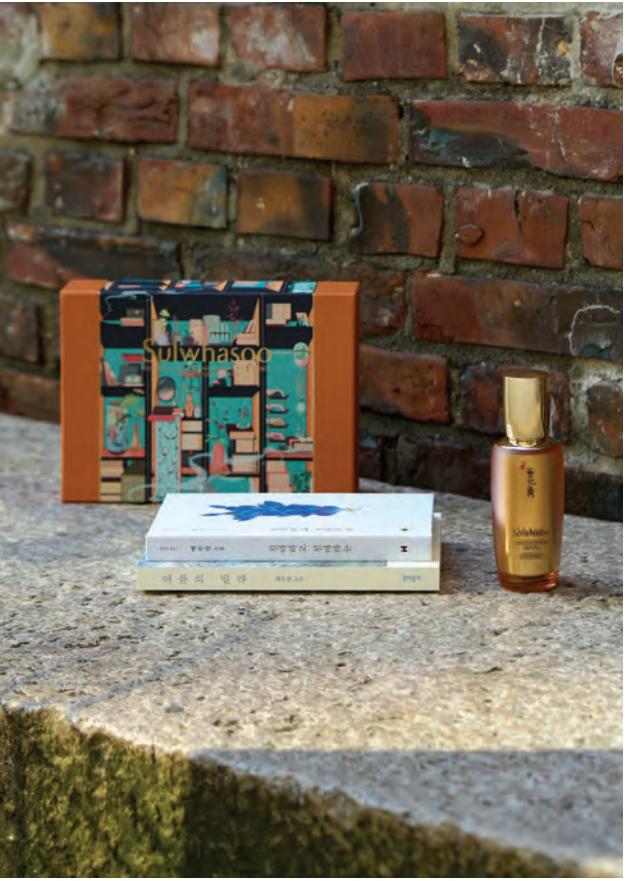
In spite of all this, not long ago, I decided to try my hand once again at getting lost. For me, as someone who has recently lost a loved one, it was a self-prescribed way to regain the strength to live and rise up out of my despair. Every morning, I had a hurried meal as soon as I woke up, after which I willed myself to put my sneakers on-with the backs folded under my heels-and leave the house. The alleys, however, ended up being a source of fun and curiosity rather than concern-even though they were so out-of-the-way that they didn't appear on any road navigation app. On my walks, I had fun looking out for the clothing repair shop that always had its window sill lined with brightly-colored potted flowers (with a sign on the door in large letters reading "Assistant Wanted") and the structures set up for the neighborhood's many street cats that often popped up in the most unexpected of places.

The sounds of redevelopment were loud enough to be audible



이다)이나, 뜻밖의 공간에 놓여 있는 길고양이들의 쉼터 같은 것들을 산책하면서 날마다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나는 걷다가 마주친 테이블이 네 개밖에 없는 국숫집에서 허기를 달냈고, 간판도 없는 계란가게를 기웃거렸으며(계란만 파는 가게라니, 그런 게 세상에 존재했던 말인가!). 미래를 알려준다고 써 붙여놓고는 볼 때마다 부재중인 점집을 지나면서 미래는 역시나 영영 알 수 없는 것인가보군, 생각했다. 재개발 공사하는 소리는 저 멀리서 시끄러웠지만, 아직 남아있는 골목들은 한낮에도 고요했다. 산책을 하면서, 멀리서는 칙칙해 보이는 골목들이 가을볕 아래 색연필로 칠한 그림처럼 알록달록하게 되살아나는 마법을 나는 목격했다. 쓸모와 효용이라는 물감으로 짙게 덧칠한 색안경을 벗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빛깔들. 나는 빛을 채집하는 사람처럼, 저층 빌라들 틈새의 좁은 마당 위로 익어가는 감의 주홍빛과 누군가 창가에 매달아 말리는 고추의 붉은빛을 눈에 담았다. 쇠락한

from afar. The alleys that were untouched by construction, however, were quiet even during the brightest daytime hours. On my walks, I witnessed the magical way in which alleys that looked drab from far away came alive under the warm autumn sun, taking on the appearance of a pencil illustration done in colors that I could see only after removing my glasses, which had a thick veneer of utility and efficiency. Like a collector of light, I was drawn to the deep orange of the persimmons hanging from trees tightly squeezed between villas and the bright red of the peppers laid out to dry outside someone's window. As more days passed, with the colors of autumn peeking out from cracks in the aged brick walls serving as the compass for my walks, the colors of the leaves changed, and the sky became an ever-deeper blue. The longer the walk, the better. But a walk can continue for only



소설집〈여름의 빌라〉, 중편소설〈친애하고, 친애하는〉, 에세이〈다정한 매일매일〉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미세한 감정을 세심하게 표현하는 백수린 소설가에게
자음생애센스 훌리데이 컬렉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벽돌 담벼락 위로 일렁이는 가을빛을 나침반 삼아 걷는 날들이 쌓일수록 나뭇잎의 색이 바뀌고 하늘의 색은 깊어졌다.

산책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렇지만 어스름이 밀려오고 지붕 위로 어둠이 몸을 드리우기 시작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사뿐사뿐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 멀리서 포효하는 포크레인 소리가 들려오면 발걸음은 마음을 따라 다시 무거워지곤 했다. 우산 펴고 양쪽으로 다닐 수도 없는 좁은 골목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현수막을 써서 동네 여기저기에 붙이는 사람에게도, 정든 동네를 떠나면서 서울 하늘 아래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정이 어떠하든, 서울은 넓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도시니까 우리 동네의 많은 골목들도 앞서 사라져버

so long: once dusk arrives and darkness covers the rooftops, I have to return home. On my merry way home, when I hear the roar of a crane fork in the distance, my feet-and heart-become heavy once again. Everyone, including those who put up banners declaring that they can no longer live in a place where the alleys are so narrow that two people holding up open umbrellas cannot walk side by side and those who say that there is nowhere else for them to go in Seoul if they are forced out of this neighborhood, has extenuating circumstances. Regardless of each person's complex backstory, because Seoul is a city that thinks little of things that have aged, the many alleys in my neighborhood will one day be razed for the sake

린 수많은 골목들처럼 아마도 언젠가는 편리성과 효용성이라는 것발 아래 헐릴 것이다.

그리고 보면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건 대체로 이렇게 누군가의 눈에는 쓸모없어 버려야 할 것들인 경우가 많았다. 언젠가 나의 친구는 하찮은 물건조차 좀처럼 잘 버리지 못하는 나에게 예술가는 쓸데없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보다고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예술가들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이 획일적일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안다. 똑같은 형태의 아름다움, 똑같은 무늬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뻔하고 재미없는지. 새로운 것들은 멋쟁이 친구처럼 세련됐지만, 시간을 벼텨낸 것들은 과묵한 친구처럼 들히하다. 나는 편리함이나 쾌적함이 주는 선명한 기쁨만큼이나 낡고 오래된 것이 주는 은은한 기쁨을 아낀다. 오래된 것이 아름다운 건 시간을 품었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사람이나 동식물처럼 생명을 지닌 것이든 공간이나 사물처럼 그렇지 않은 것이든, 무언가 품위와 존엄을 가질 수 있는 건 수많은 상실과 슬픔을 견디며 쌓아 올린 세월의 무게가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다. 시간을 견뎌낸 것들은 그것만으로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내일은 또 어디를 걸어볼까? 걷는 일이 마음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나 자신도, 내가 겪은 고통도 결국엔 커다란 세상을 이루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가능한 멀리, 조금 더 멀리. 나는 여전히 아침마다 운동화를 찾아 신는다. 사라지기 전에 눈에 담고 싶은 풍경들이 있고, 걷고 싶은 골목들이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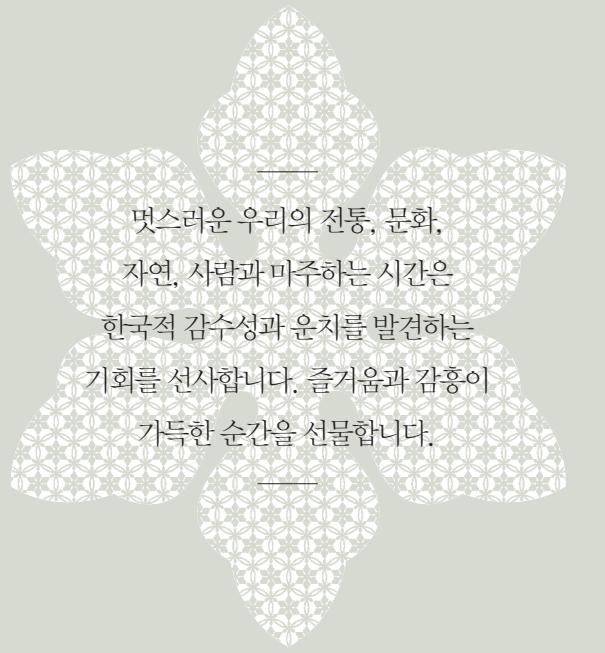
안녕, 나는 길을 걷다 마주치는 아기 고양이와 하얀 나비와 구름에게 인사를 건넨다. 방향을 잃어서 똑같은 가게 앞을 세 번이나 지나쳐도 스스로의 어리숙함을 책망하는 대신 웃어주고, 낡은 의자에 앉아 골목에서 조는 노인과 소소한 대화를 나눈다. 작은 창문 너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품고 있을 이야기를 상상하고, 피아노 교습소에서 들려오는 서툰 멜로디에 귀를 기울인다.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나의 능력 밖의 일이다. 하지만 찬란한 가을 햇살 속 어떤 풍경들과 마주할 때마다, 슬픔이 너무 커서 세상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던 나의 마음에도 황홀함이 깃드는 걸 느끼며 나는 아름다움은 어쩌면 삶을 닮은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정해놓은 목적지도 없이 팔랑팔랑, 느릿느릿 걷는 매일매일이 쌓이는 동안 내 눈길이 오래 머무는 모든 것들의 이름 또한 틀림없이 아름다움일 것이다. 아름다움은 오늘도 도처에서 저마다의 빛을 품은 채 자란다. S

of convenience and efficiency-a fate shared by so many alleys that have long since disappeared.

In a sense, the things that I am captivated by are usually useless and obsolete in the eyes of others. A friend once remarked, seeing that I had trouble letting go of trivial possessions, that an artist "must be someone who loves useless things." I do not know whether this is true of all artists, but one thing that I am sure about is that beauty is not uniform. There is nothing intriguing about beauty that always takes the same shape or design: things that are new are like a cool, fashionista friend. Things that have endured the test of time, on the other hand, are like a friend that may not talk much but can be counted on. I love the subtle happiness I get from aged things just as much as the more tangible pleasure I get from things that provide convenience and newness. Old objects are beautiful because they reflect the passage of time. Something that is characterized by a dignified gracefulness-whether it has life like a person, plant, or animal or whether it is a non-living object like a space or everyday object-can only attain such gracefulness by enduring many years of loss and sorrow. Things that have shouldered the weight of time deserve to be respected for the fact that they have endured.

While tying my shoelaces every morning, I still think about where I want to explore. It may be because the act of walking helps me realize that I and the pain I am currently feeling are ultimately no more than a minuscule part of the world. Every day, I resolve to walk just a little farther outside of my comfort zone, because there are views that I want to see and alleys I want to walk along before they disappear. Defining beauty in one word (or phrase) is a task that is beyond my ability. What I do know is that, when I encounter a landscape that is full of radiant autumn sunlight, I feel a certain joy trickle into my heart that alleviates my immense grief and the resentment of the world that such grief brought about. In these moments, I wonder whether beauty is synonymous with life. If this is true, all of the things that I feel compelled to stop and admire for a moment on my slow, meandering, destination-less, daily walks are beautiful. At this very moment, beauty exists in every nook and cranny, radiating a glow that one needs to take the time to see.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누리다

유나 양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Yuna Yang, the new category

Y u n a Y a n g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 '유나양'은 서구인에게 어색한 한국어로 브랜드 이름을 만들고,
아시아 디자이너들이 가려 하지 않는 하이엔드 브랜드의 길에 들어섰다.
뉴욕 패션 위크에 데뷔했고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 10년 이상 살아남았다.
네가 들어갈 카테고리는 없다고 했지만 그녀는 기어이 존재하지 않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

글 이재영 사진 한수정(Day40 스튜디오)





사회적 가치를 지닌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유나양'의 옷은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의 작품으로 참여한다.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옷'이 아닌 동시대의 이야기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매개체' 역할에 충실한다. "유나양의 제품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에 대해 고민하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브랜드는 사회적 의미를 지녔으면 해요." 십 년 전 다른 하이엔드에서 여전히 모피 고객을 위한 디자인을 할 때, 그녀는 컬렉션에 과감히 인조 퍼 디자인을 선보였다. 여성의 보디 포지티브에 대해서도 늘 생각한다. 여성은 나이와 사이즈로 나누는 걸 반대해서다. 2016년부터 패션 위크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기용했다. 다른 브랜드보다 앞선 행보였다. 오프닝과 클로징 모델은 주로 백인이라는 불문율을 깨고 아시아계나 아프리카계 모델을 세우기도 했다. 아시아 여성 디자이너가 주류 패션 영역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헤나가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들려왔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샤넬이 유명해진 것도 여성은 코르셋에서 해방시키고, 남성만 입던 편안한 저지 소재를 여성복에 도입하는 등 사회 변화를 주도한 컬렉션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여성에게 최초로 바지 정장 턱시도를 입힌 이브 생 로랑도 마찬가지고요. 패션사에 남는 디자이너는 단순히 예쁜 옷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이끈 사람들이었죠." 유나 양이 생각하는 브랜드 '유나양'의 나아갈 바는 명확하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것.

A socially-conscious brand

Any clothing from the high-end brand 'Yuna Yang' is easily the centerpiece of its owner's closet. This is because Yang's brand takes clothing far beyond something that protects and embellishes the body to make it a medium of our generation's stories and for better world. "I deeply think about the message that I want to convey through my clothes all the time. I would like Yuna Yang to take on social meaning." Approximately 10 years ago, when other high-end brands designed fur coats for several customers' demands, she featured fake fur designs-something that was not common at the time. Another priority for Yang is her delicate consideration for female body positivity. Since 2016, Yang, who objects to categorizing women based on age and size, has begun presenting plus-sized models on Fashion Week runways long before other brands. She also broke the tacit rule of using Caucasian models for the opening and closing outfits, by featuring ethnic Asian or African models instead. These bold measures taken by a female Asian designer in the world of mainstream fashion gained a wide range of reactions-none of which deterred Yang from her sense of mission. "If we think of how Coco Chanel has gained her fame today, it is chiefly because her collections aimed to achieve social changes, such as freeing women from corsets and using jersey, which had been applied only to menswear, for women's clothing. The same is true of Yves Saint Laurent, who was the first to dress women in tuxedo suits. Most of the beloved fashion designers today are those who not only produce 'looking-nice' clothes but were leaders of their time."

시대를 읽는 디자인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유나 양은 단순한 옷의 목적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옷을 매개로 동시대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늘 고민한다. “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시대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입고 소화해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얼만큼 소통이 되느냐에 따라 유행을 하고 사라지는 거겠죠. 아티스트는 사후에도 시대의 부름을 받지만 패션은 당시에 주목받고 입혀져야 가치가 있어요. 지금의 사회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때문에 그녀는 다양한 방면에 촉수를 열어두려고 노력한다. 세상에 오고 가는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다. 올해 뉴욕 패션 위크에 서는 대신 북촌에서 컬렉션을 선보인 것도 시대 변화에 따른 시도였다. “10년 동안 뉴욕 패션 위크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해보자 싶었어요. 브랜드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신선하고 재미있다며 반응이 좋았어요. 정보가 넘치는 사회에서 고객들은 상호 작용이 가능한 브랜드를 선호해요.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선도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난 거죠.”

나만의 길을 간다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정해진 컬렉션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나아가고 싶어서였다. 매일 아침을 명상으로 시작하는 그녀는 깊게 생각하고 한 번에 쏟아붓는 스타일이다. “스케치를 많이 하면 오히려 생각한 디자인을 다 잊는 것 같아요. 무조건 많이 하는 건 생

Designs reflecting their era

Yang, an independent designer who also works as a creative director, thinks of clothing not only as a means to an end but as a carrier of stories of the time. “The word ‘fashion’ itself is grounded in contemporariness. Its outcomes are worn by the people of the era. Depending on how well they communicate with society, fashion trends come and go, with some rare ones managing to stay relatively for a bit longer. Artists are often called upon posthumously to speak for a generation. Fashion, however, gains value only by being noted and worn at the time it is created. That’s why fashion designers ne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society in which he or she is living.” To stay sensitive to a variety of social phenomena, Yang pays close attention to what people are saying and reads widely. “I never forget to read, no matter how busy I am. I usually don’t have time to thoroughly read one book at a time, though. Hence, I keep books in several easily-accessible places so that I can pick one up and read whenever I have a few moments to spare.” It is due to Yang’s efforts to change with the times that this year, instead of going to New York Fashion Week, she unveiled her latest collection in Bukchon. Another reason for the Bukchon endeavor was Yang’s desire not to work at the breakneck pace that is typically necessary to meet the deadlines of an established fashion event. Yang, who starts her day with a meditation session, prefers to go “all in” in one session after spending sufficient





각의 맵을 끊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무조건 똑같은 스케치를 100장씩 한다고 같은 효율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학 특강을 가면 잘 관찰했다가 학생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작업 방식을 조언해 주죠.” 그녀가 가장 많이 했던 건 스스로를 향한 질문이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이 뭘까? 나만의 스타일이 뭘까? 남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유나 양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편한 길이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겁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게 맞는 걸 하자는 생각이에요. 운도 좋았지만 나만의 길을 갔기 때문에 뉴욕에서 ‘유나양’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봐요.”

20대부터 7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는 것, 아시아 제품은 저거라는 이미지를 깨고 높은 퀄리티의 하이엔드 제품을 내놓는 것, 미의 기준을 개인 고유의 아름다움에 두는 것, 한때의 것이 아닌 계속해서 성장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유나 양은 자신의 브랜드가 설화수와 닮은 점이 무척 많다고 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야 했던 뉴욕에서 윤조 에센스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시간을 절약하면서 아름다움까지 잡아주는.” 유나양이 앞으로도 뉴욕과 한국, 아니 전 세계에서 저력을 보여주는 브랜드로 자리하기를 바란다. S

time in deep thought about what she wants to create. “The more I sketch, the more I feel like I’m losing the designs I was thinking of. In sketching, more is not necessarily better: if done indiscriminately, you can lose hold of the work rhythm that suits you best. Everyone works differently: in other words, not everyone is going to benefit from doing 100 sketches. When I give a lecture at a university, I take time to observe students at work and give them advice on their strengths on an individual basis.” What Yang does the most frequently is asking herself questions: mostly, about what she is good at and whether she is building up a unique style. She eventually realized that doing “what everyone else does” is not the Yuna Yang way. “Even the easiest and most convenient of paths is one of hardship if it does not work for you. Why? Because it’s not fun. I much prefer taking on the challenges that I want to take on, even if there are risks, and creating in a way that best matches my strengths. To be sure, I’ve had a lot of luck. I also believe, though, that the reason Yuna Yang is still alive and well in New York is because I was not afraid to forge my own path.” Yang had a lot to say about the similarities between her brand and Sulwhasoo, including that they: are beloved by all ages, from those in their 20s to those in their 70s; create high-quality, high-end products that dispel the notion that Asian products are “cheap”; make each individual’s unique beauty the standard for what it means to be beautiful; and aspire to a beauty that is not limited to a certain period of life but grows throughout one’s lifetime. “First Care Activating Serum was a must-have in New York, when I was always insanely busy. It kills two birds with one stone: saving time while making you feel your best.” Yuna Yang is on the cusp of growing into a global brand that is competitive and relatable, not only in New York and Korea but all over the world.

메이크업 김아름(살롱드 플로리) 헤어 박소영(살롱드 플로리) 의상 유나양(YUNA YNAG)



차분히 차오르는 차의 시간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맛이 깨어나는 시간을 기다린다.

차를 대하는 마음은 유난히 공손하고 정성스럽다.

그렇게 차와 함께 매일매일 좋은 날이 차오른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여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13

- 1 눈 내린 포근한 풍경을 그린 유화 작품은 고지영 작가 by 이목갤러리. 2 백자 달향아리는 소사요 by 뷰로파피에.
3 추상 틴화 소반과 행잉 오브제는 모두 빙홍구 작가. 4 검은색 도자기 저그, 양각 조각을 새긴 잔 받침은 모두
전하람 작가. 5 소반의 구성 요소를 접목하고 옻칠 후 구워서 마감한 '폴리매스 프로젝트3 – 茶(벤자)'는 한결 작가.
6 백자 합. 숙우. 잔. 다관은 일상 속 행복한 시간을 위한 매개체의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이준호 작가.
7 간결하고 절제된 느낌을 강조한 소나무 분재 '해성 문인목'은 김예지 작가 by 온화수. 8 백자에 회오리 물결
문양을 더한 화병은 유세리 작가. 9 사각 방식은 뷰로파피에. 10 문이 달린 선반은 Area+. 11 조선 백자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화병, 리듬, 볼, 은 손잡이 차 거름망. 다관은 모두 도농도예.
*페인트는 DET625, DET624로 모두 던에드워드 논현점



10



11



11



3

원쪽 페이지 | 직사각형 소반은 모두 이종구 작가. 2 블루와 브리운 컬러가 섞인 잔 숙우. 브리운 컬러
다관은 토립도예. 3 오벌 형태 한지 매트는 Area+. 4 일상에 기쁨을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백자 다관
잔 합은 유세리 작가. 5 은주전자. 접시 스푼. 잔은 류연희 작가. 6 스틸로 제작한 다리와 둉근 나무 상판을
접목한 작가 한결의 '폴리마스 프로젝트3 – 茶(소반)'. 7 백자 찬과 받침. 개완은 김길산 작가. 8 주황색
사각 방석은 뷰로파피에. 9 윷칠한 키커 컬러 트레이이는 이종구 작가. 10 나무를 깎고 여러 번 윷칠해 만든
'풀리마스 프로젝트3 – 茶(차시, 접게)'는 한결 작가. 11 곡선 형태 소반은 이근자안. 12 박지 기법으로 그림을
새긴 도자기 작업은 전하람 작가. 13 차도구를 유화로 표현한 그림은 김지연 작가 @jyeon_kim_artist.

오른쪽 페이지 | 원형 접시와 다완은 Area+. 2 대나무 차선은 뷰로파피에. 3 주황색으로 윷칠한 테이블
상판은 이종구 작가. 4 박지 기법으로 그림을 새긴 도자기 작업은 전하람 작가. 5 백자 핸드볼딩 다완은
박나혜 작가. 6 분청 백자 색채를 기본으로 한 디완은 이용무 작가. 7 물레로 작업해 금으로 장식한 흑자
다완은 토립도예. 8 은칠로 마감한 디완은 장훈성 작가 by Area+. 9 주황빛 말차 시발은 김길산 작가.
10 나무를 깎아 만든 차시와 다하는 염동훈 작가.



차의 삼매경을 깨닫다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박물학서 〈임원경제지〉 중 '이운지'에서는 차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차의 본성은 검소하기 때문에 넓은 디완은 좋지 않고 차가 뜨거울 때 연달아 마신다고 했다.

다구는 스물네 가지에 이른다고 했지만 사실 디완과 첫잔 디완과 숙우 정도로도 부족함이 없다.



차를 반쯤 마시고 향을 사르다

'다번향초', 즉 차를 마시다 향을 시른다는 의미로 차에 깊이 빠졌던 주사 김정희가 쓴 글이다.

허균이 지은 글이나 다산 정약용의 글에서도 차를 달이고 향을 시르는 다번향초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향의 흐름과 차의 향기가 어우러진 운치 넘치는 풍경은 차 생활의 또 다른 기쁨이다. 다식을 곁들이면 찾자리의 풍미도 한껏 높아진다.



왼쪽 페이지 1 소반의 구성 요소를 접목하고 옷칠 후 구워서 미감한 '풀리매스 프로젝트3 – 茶(넨치)'는 한결 작가. 2 포도문이 그려진 미니 화병은 토립도예.

3 해태가 장식된 뚜껑의 향합은 소사요 by 뷰로파피에. 4 백자 숙우와 잔은 소시요 by 뷰로파피에. 5 오벌 형태 헌지 매트는 Area+. 6 숲길 작업실에서 만난 자연물을 질료로 작업하는 금속 오브제는 포백. 7 분청. 백자 색채를 기본으로 한 합은 이용무 작가. 8 흑자 다관과 다반은 소사요 by 뷰로파피에.

오른쪽 페이지 1 베이지색 테이블 상판은 이종구 작가. 2 브라운 컬러 저그는 윤세호 작가 by Area+. 3 은으로 만든 접시와 스푼은 류연희 작가. 4 숲길

작업실에서 만난 자연물을 질료로 작업하는 금속 오브제는 포백. 5 은 뚜껑 다관과 백자 잔은 도농도에. 6 살구색 합은 Area+. 7 직사각 굽접시는 김규태 작가 by Area+. 8 모란 무늬 옷칠 직사각 매트는 온하루.

장엄하고 고요한 서정

하얗게 피어 오른 운무가 휘감은 설악은 선경 그 자체다.
그윽하고 신비로운 신선의 자취가 머무는 휴식처에 설화수가 놓였다.
가장 아름다운 빛깔로,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담은 집념의 절정 붉고 붉어라.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설화수 인삼 연구의 절정을 담다

인삼의 생명력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믹스™는 설화수 50년 인삼 연구의 결정체다.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진귀한 인삼 사포닌만 골라 농축해 강력한 활성 뷰티 사포닌으로 탄생시킨 진세노믹스™는 자음생수와 자음생유액에
담겨 근본적인 안티에이징을 담당한다. 더불어 인삼의 수분과 영양을 응축한 증삼수™으로 건강한 피부 바탕을 선사한다.
자음생수EX 150ml 10만원, 자음생유액EX 125ml 10만5천원



붉은 환희의 꿈이 물들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의 새로운 컬러로 물든 건강하고 붉은 입술에서 이름다운 피어난다.

39호 로즈 베일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톤 다운된 핑크로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56호 플레이어 레드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베트 오렌지가 더해진 레드 컬러가 생기 넘치는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행인유와 엘라스틱 콤플렉스가 탄력 있는 입술을 선사하고 유·수분 2중 보습막이 입술을 감싸 촉촉하고 편안하다. 3g 4만원



천천히 스미는 발효의 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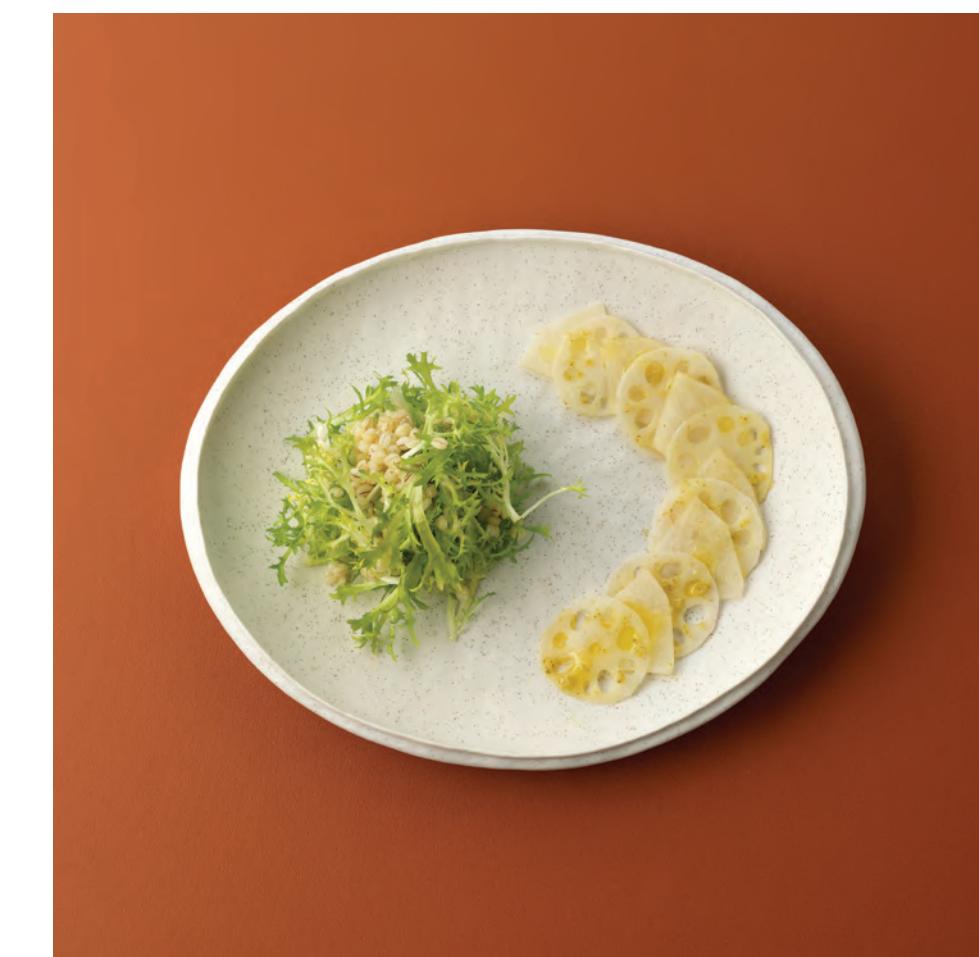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식품은 익숙하지만 발효 요리는 의외로 낯설다. 풍요로운 맛과 영양이 더해지는 발효의 힘이 무궁무진한데도 말이다.

옛것이라는 편견 대신 새로운 시도로 숙성되고 있는 발효 요리로 풍성한 미각을 누려보자.



콤부차 드레싱과

곡물 샐러드



재료

연근 · 배 1/4개씩, 영귤발효소금 1큰술, 올리브오일 1작은술, 삶은 보리 50g, 잎채소 한 줌
(콤부차 드레싱) 콤부차 1작은술, 올리브오일 3작은술, 소금 · 후춧가루 약간씩

만드는 법

- 1 연근은 얇게 잘라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 식혀 영귤발효소금을 얇게 바른다.
- 2 얇게 썬 배와 ①의 연근을 하나씩 포개어 접시에 담는다.
- 3 볼에 삶은 보리와 채 씬 잎채소를 담아 콤부차, 올리브오일,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섞은 드레싱을 뿌린 뒤 골고루 섞는다.
- 4 ②의 연근과 배를 담은 접시 한쪽에 ③의 곡물 샐러드를 담아 완성한다.



동아와 마수제비
된장 스투

버섯곡물식혜를 곁들인
앉은뱅이 밀국수

재료

표고버섯 · 느타리버섯 · 새송이버섯 · 팽이버섯 · 미나리 · 무 50g씩,
누룩 20g, 옛기름 10g, 고춧가루 5g, 기장 · 맵쌀 15g씩, 간장 3큰술,
앉은뱅이 밀면 100g, 소금 약간

만드는 법

- 1 기장과 맵쌀은 고두밥을 지어 식힌다.
- 2 네 가지 버섯은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꼭 짠 뒤, 기름 없는 팬에서
익을 때까지 구워 식힌다.
- 3 무는 굽은 채를 썰고 소금에 살짝 절여 물기를 꼭 짠 뒤 고춧가루로
버무리고, 미나리는 3cm 크기로 자른다.
- 4 ①의 고두밥에 ②의 버섯과 ③의 무, 미나리, 누룩을 모두 넣은 뒤
간장으로 간을 맞춰 버무려 실온에서 3일 동안 발효시킨다.
- 5 앉은뱅이 밀면을 삶은 뒤 발효된 ④의 버섯곡물식혜를 곁들여 낸다.



재료

동아 100g, 마 50g, 참송이 1개, 우리밀 밀가루 50g, 홍고추 1개, 된장 1큰술, 물 300ml,
소금 · 참기름 약간씩

만드는 법

- 1 동아는 껌질을 벗겨 속을 파낸 뒤 큼직하게 썰고, 홍고추는 어슷 썰고, 참송이는 세로로 썰어
기름 없는 팬에서 굽는다.
- 2 마는 한 번 짹서 식힌 뒤 떡서에 갈고, 밀가루와 소금을 넣어 숟가락으로 떠질 정도의 농도로 섞어
마수제비 반죽을 만든다.
- 3 물 300ml에 된장을 풀어 된장물을 만든다.
- 4 냄비에 참기름을 두른 후 ①의 동아를 넣어 볶는다. 참기름이 동아에 스며들면 물을 자작하게
붓고 끓인 뒤 ③의 된장물을 넣고, ②의 마수제비 반죽을 한 숟가락씩 동그랗게 떠 넣어 익힌다.
- 5 ④의 마수제비가 거의 익으면 그릇에 담아 ①에서 준비한 홍고추와 구운 참송이를 올려 완성한다.

두부 발효크림을 곁들인
땅콩호박 발효파이

재료

(파이 속 재료) 땅콩호박 · 양파 1/2개씩, 금귤발효소금 · 올리브오일 1작은술씩

(비건 파이지) 우리밀 밀가루 100g, 비건 발효버터 50g, 소금 · 비정제설탕 1/2작은술씩, 찬물 20g, 시나몬 · 카다멈 가루 약간씩

(두부발효크림) 시오코우지 · 레몬즙 1큰술씩, 물을 뺀 단단한 두부 1/4모

만드는 법

1 물을 뺀 단단한 두부에 시오코우지를 발라 이틀간 냉장고에서 발효시킨 뒤 레몬즙을 첨가해 블렌더로 곱게 갈아 두부발효크림을 만든다.

2 볼에 물을 제외한 파이지 재료를 모두 넣고 잘 섞은 뒤 물을 넣어 반죽하고,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숙성해 파이지를 만든다.

3 땅콩호박은 긴 방향으로 잘라 껌질과 씨를 제거하고 칼집을 내 180°C로 예열한 오븐에서 30분간 굽는다.

4 양파는 얇게 채 썰어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서 금귤발효소금을 뿐린 뒤 캐러멜 색이 되도록 약한 불로 볶는다.

5 밀대로 ②의 파이지를 넓게 민 다음 구운 땅콩호박과 양파를 얹고 180°C로 예열한 오븐에서 45분간 굽는다. 구운 파이 위에 ①의 두부 발효크림을 얹고 기호에 따라 로즈메리와 시나몬 스틱으로 장식한다.



사과발효셔벗을 올린
콤부차 플로트



재료

콤부차 120g (사과발효셔벗) 식물성 발효 요거트 100g, 사과즙 180g, 사과잼 150g, 무향 코코넛 오일 70g, 찹쌀밥 40g

만드는 법

1 믹서에 사과발효셔벗 재료를 모두 넣어 함께 간다.

2 ①를 냉장고에서 하룻밤 숙성시킨 후 아이스크림 메이커에 넣고 돌린 뒤, 용기에 담아 냉동고에서 하룻밤 굳힌다.

3 컵에 얼음과 콤부차를 넣고 맨 위에 사과발효셔벗을 올려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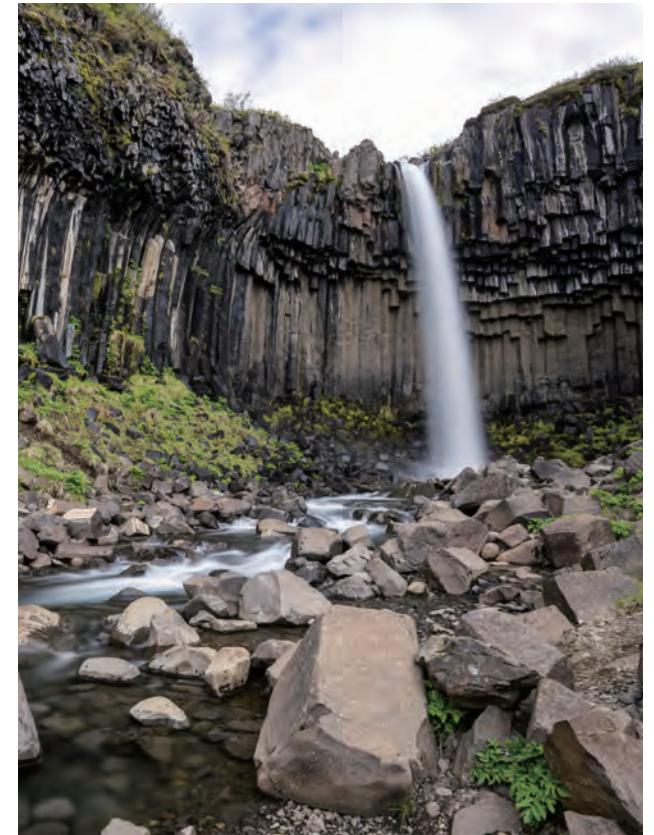
태초의 풍광, 그 극적인 아름다움

Skaftafell & Pinnacles

스카프타펠 & 피나클스

기끔 터무니없이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사소한 일상이 쌓이고 쌓여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 때,
아주 먼 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을 쳐다보고 싶다. 낯설고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해지므로,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사람의 손길이 채 닿지 않은,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장소들이다. 불과 얼음의 나라라 불리는 아이슬란드 역시 그렇다.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뜨거운 간헐천과 용암, 거대한 규모의 폭포, 끝도 없이 펼쳐지는 빙하와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오로라… 자연의 경이를 느끼기에 더없이 충만한 땅이 아닐까.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규모로 꽉히는 바트나이외쿠틀(Vatnajökull) 국립공원의 빙하. 넓이로 따지면 노르웨이의 에우스트포나(Austfonna)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크다. 특히 스카프타펠(Skaftafell)은 바트나이외쿠틀 빙하에서 뗌어 나온 크고 작은 빙하들을 체험할 수 있어 여행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얼음 행성의 실제 촬영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첫눈에도 지구가 아닌 외계의 공간처럼 보인다.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연습 삼아 만들어본 곳’이라는 아이슬란드의 수식어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카프타펠의 빙하 지대를 탐험하는 트레킹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빙하 위를 직접 걸으며 하는 트레킹은 아이젠과 헬멧을 착용하고 가이드가 안전한 길로 인도하면서 진행된다. 곳곳에 깊은 크레

Vatnajökull, the largest glacier in Iceland, is second in size (in terms of area, in Europe) only to Norway's Austfonna. Skaftafell is a nature reserve that is popular with tourists for providing experiences of “mini-glaciers” of multiple sizes that are extensions of Vatnajökull. Famous as the filming site for the ice planet scene in Interstellar, Skaftafell, even at first glance, looks more like a place on an alien planet than one on Earth. The Icelandic moniker, “what the gods created as practice before making the world,” makes a lot of sense when standing in it. A trek through Skaftafell’s glaciers is a once-in-a-lifetime experience. The course that allows you to walk on the glaciers requires you to wear a helmet and climbing spurs, and the participants are accompanied by a guide along safe paths. Of course, you do need to always be wary of the many crevasses, or deep glacial cracks. Skaftafell’s glaciers are relatively dark because of the presence of volcanic ash, making them look more like rocks than ice. It is easy to feel as if you have made an emergency landing on an unknown



바스(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스카프타펠의 빙하는 화산재가 섞여 어두운 편이다. 얼음이라기보다 암석의 느낌에 가까운. 이름 모를 행성에 불시착하여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풍경을 앞에 둔 이의 시점이 이와 비슷할 터이다. 하지만 크래バス의 갈라진 틈 사이로 보이는 신비한 푸른색이 이곳 역시 까마득한 지구의 시간을 품고 있는 빙하임을 증명한다. 또한, 스카프타펠에서는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된 에메랄드빛 얼음 동굴을 볼 수 있다. 그야말로 '빙하의 속살'이라 할 수 있는 얼음 동굴은 1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겨울에만 탐험할 수 있다. 동굴 내부는 빙하의 푸른빛으로 초현실적인 아름다움을 내뿜는다. 사방을 채우는 물고기 비늘처럼 반짝이는 얼음 조각들이 태곳적 신비로운 비밀을 속삭인다.

경이로운 자연 경관으로 서호주 역시 빼질 수 없다. 퍼스에서 3시간 정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남봉국립공원(Nambung National Park)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피너클스 사막(Pinnacles Desert). 드넓은 금빛 모래밭 위에 수천 개의 석회 기둥이 만들어내는 장관 역시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사막에 솟아 있는 석회석 바위들은 모두 제각기 다른 모습인데, 그중 높은 것은 3.5미터에 이른

planet and see nothing but vast stretches of wasteland. It is the blue color of the crevasses that reminds visitors they are indeed looking at a glacier on Earth. Another attraction of Skaftafell is the bluish ice cave, which was the inspiration for the caves in Frozen II. The cave, which is quite literally the glacier's "inner flesh," can only be explored in wintertime (early November to late March). The inside of the cave glows with the surreal beauty of the glacier's blue tones: the icy walls, which sparkle like fish scales and spread in all directions as far as the eyes can see, seem to be whispering to the human visitors secrets of the world when it was in its infancy.

Western Australia is home to another awe-inspiring natural landscape: Pinnacles Desert, the highlight of Nambung National Park, which is approximately three hours from Perth. The thousands of limestone formations-referred to as "the Pinnacles"-that dot the desert's golden sands give one the impression, like Skaftafell, of being on a different planet. The tall, pointed limestone rocks, no two of which are identical, reach as high as 3.5 meters and number approximately 15,000. It is a massive

다. '뾰족하게 솟은 것'이란 뜻의 '피너클스'는 그 이름답게 뾰족뾰족하게 솟아오른 돌기둥이 약 1만 5,000여 개가 넘는다. 수백만 년에 걸친 모래바람의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손길이 하나하나 빛은 작품들이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다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 상대적으로 훼손이 덜 된 지역이다. 일 년 내내 방문이 가능하지만 봄에 방문하면 색색의 다양한 애생화가 활짝 피어 돌기둥과 어우러지는 풍광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돌기둥들의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기묘한 분위기를 이루는 피너클스의 석양 역시 놓치기 아깝다. 서호주는 대기가 깨끗해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특히 피너클스 사막에서 바라보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피너클스 사막에서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달리면, 갑자기 거대한 핑크색 물결을 마주한다. 헛 라군(Hutt Lagoon)의 핑크 호수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핑크 호수를 볼 수 있지만, 서호주의 핑크 호수는 더 진한 분홍색을 자랑한다. 물속의 소금 성분이 강한 햇빛과 조류를 만나 이루어진 신비로운 현상이다. 이처럼 세상이 아닌 것만 같은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풍경 앞에서, 우리의 여행은 보다 깊고 새로워진다. S

masterpiece created by millions of years of weathering by sandstorms. The area occupied by the Pinnacles is relatively free from human-caused damage, having been closed to the public until the late 1960s, after which it was included as part of Nambung National Park. It is open to visitors year-round but reaches the height of its beauty in the spring, when the rocks are embellished by the colorful wildflowers that bloom in abundance there. Constellations are generally clearly visible in the night sky throughout Western Australia due to the country's clean air, and stargazing at Pinnacles Desert is especially popular because of the beauty of the desert's night sky. If you continue north along the coast from the desert, you will be surprised by the sight of the bright pink waters of Hutt Lagoon, a marine salt lake. Of all the world's pink lakes, Hutt Lagoon's waters are especially vivid-a phenomenon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waters salt content with strong sunlight and carotenoid-producing algae. Enrich your travels by setting aside some time for landscapes that, like Skaftafell and Pinnacles Desert, seem otherworldly and exceed your expectations of "normal" beauty.

진귀한 보물이 가득한 비밀 상자

설화수가 준비한 2021년 연말 선물 제안은 조선 시대 책가도를 현대적인 무드로 표현한 'Unlock the secret chamber' 출리데이 컬렉션이다.

시간의 흐름에도 건강하게 빛나는 이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의 진귀한 보물과 더불어 비밀스럽고 환상적인 설렘까지 그득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윤조 에센스 홀리데이 컬렉션 FIRST CARE ACTIVATING SERUM HOLIDAY COLLECTION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필수 안티에이징 부스터 세트. 윤조에센스는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해 피부 자생력과 보호력을 강화하고 피부 장벽의 겉과 속을 동시에 관리하는 진정한 안티에이징을 선보인다. 윤조에센스 90ml, 자음수 15ml, 자음유액 15ml, 탄력크림 5ml, 순행클렌징폼 50ml 13만원

유리 항아리 화병은 김동완 작가 by 뷰로파피에. 긴 형태의 도자기 화병은 권재우 작가.

현대적으로 엮은 전통 책 배접 작업은 모두 지희승 작가. 호리병 형태의 도자 화병은 오선주 작가.

기둥 형태 화병은 정지원 작가 by 뷰로파피에. 회색 벽은 DE6227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자음생에센스 홀리데이 컬렉션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HOLIDAY COLLECTION

활성 뷰티 사포닌 진세노믹스™가 피부의 탄력이 필요한 곳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 피부를 속부터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마이크로 타깃팅으로 한층 턴턴한 피부를 완성하는 대표 탄력 인티에이징 세트다. 자음생에센스 50ml, 자음생수 25ml, 자음생유액 25ml, 자음생크림 소프트 5ml, 자음생에센스 15ml, 순행클렌징폼 50ml 20만원



현대적으로 엮은 전통 책 배접 작업은 모두 지희승 작가. 호리병 형태의 도자 화병은 오선주 작가.

기둥 형태 화병은 정지원 작가 by 뷰로파피에. 회색 벽은 DE6227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퍼 펙팅 쿠션 홀리데이
컬렉션
PERFECTING CUSHION
HOLIDAY COLLECTION

하루 종일 습식듯 편안하면서도 안벽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스킨케어링 쿠션
부드럽고 탄력적인 촉감의 텍스처와
기미, 잡티는 물론 모공과 미세 주름까지
커버해 결점 없는 피부를 완성한다.
탈부착이 가능한 태슬 장식이 우아함과
한국적인 미감을 더한다. 21호, 23호
15g×2, 7만5천원



카카닭 옷칠 트레이는 이중구 작가. 녹색 도자기 함은 Area+.
노방 여의주 문보 '트윙클'은 김영은 작가. 작은 경대는 아리지안.

본윤 2종 홀리데이 컬렉션
MEN BASIC HOLIDAY COLLECTION

정양단과 인삼 추출물이 피부를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남성 스킨케어 세트.
본윤에센스는 충분한 보습력과 피부 진정 효과를 발휘하고, 본윤유액은 항산화 효능과
고보습 효과를 선보이는 안티에이징 유액이다. 본윤에센스 140ml, 본윤유액 90ml,
본윤에센스 15ml, 본윤유액 8ml, 본윤선크림 15ml, 본윤클렌징폼 15ml 12만5천원



화분 아래로 흐르는 선을
강조한 소나무 분재
'진백 현애'는 김예지 작가
by 온화수. 긴 형태의
도자기 화병은 권재우
작가. 오벌 형태 옷칠
트레이는 뷰로파피에.
하늘색 벽은 DE5759로
던에드워드 논현점



에센셜 3종 홀리데이 컬렉션
ESSENTIAL COMFORT HOLIDAY COLLECTION

충분한 보습으로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찾아주고 빛나는 피부로 가꿔주는 에센셜
스킨케어 세트, 자음수 150ml, 자음유액 125ml, 윤조에센스 60ml, 자음생수 25ml,
자음생유액 25ml, 자음생에센스 8ml, 탄력크림 15ml 19만5천원



자음생크림 클래식 스페셜 홀리데이 컬렉션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LASSIC HOLIDAY COLLECTION

인삼의 자생력을 담은 진세노믹스™의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삼 캡슐 에센스와 3중 탄력 효과를 선사하는 인터에이징
크림으로 구성된 세트, 자음생에센스 30ml, 자음생크림 클래식 60ml,
자음생수 40ml, 자음생유액 40ml, 윤조에센스 15ml 32만원

보자기 포장과 향 노리개, 월넛 다빈은 모두 호호당. 합판과 원목을 활용한 간결하고 단정한
형태의 '이[利]소반'은 조병주 작가. 베이지색 옷칠 접시는 이종구 작가.

백자 케이크 트레이는 Area+. 백자 도자기 함은 정지원 작가. 유기 곱접시는 놋담.
현대적으로 역은 전통 책 배접 작업은 모두 지희승 작가.

설화수 자음생크림

손 끝에서 느껴지는 탄탄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를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불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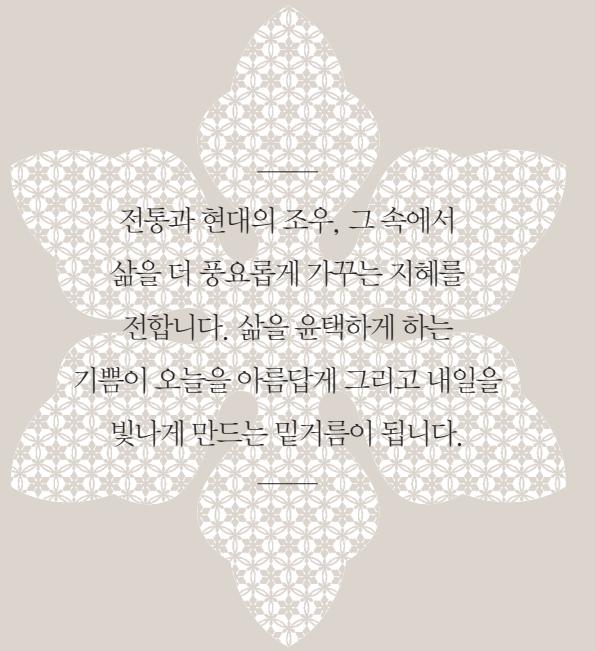
NEW



Sulwhasoo



의
호
다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맙거름이 됩니다.



복송아 모양의 주머니에 모란꽃을 누벼 벽사의 의미를 담았다. 길상 모양을 만들어 누벼 출가하는 딸에게 복의 비는 어머니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복송아 모양 열쇠때는 이덕은 작가. 백자 원형 편접시와 굽접시는 모두 유서리 작가.

한 땀, 한 땀, 고운 삶 누빌레라

색 실 누비

손이 자주 가는 물건들이 있다. 딱히 당장 쓸모가 있지 않더라도, 그저 감촉이 좋아 생각날 때마다 꺼내어 만져보게 되는.
색실누비로 만든 것들이 그렇다. 섬세하게 촘촘히 누빈 바느질로 이루어진 오밀조밀한 문양, 한지가 들어가
탄탄하면서도 올록볼록 재미있는 감촉은 곁에 두고 자꾸만 만지작거리게 한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종근

'색실누비'는 여러 가지 색실, 또는 단색의 실을 사용해서 오로지 온박 음질로 완성하는 장식성의 누비를 말한다. 두 겹의 천 사이에 심지를 넣거나 때론 넣지 않고 누비는데, 심지는 대개 한지나 면사로 된 심지 용끈을 이용한다. 일반 누비는 주로 한 가지 실을 사용해 안에 솜을 넣거나 넣지 않고 흠질로 줄지어 누비는 것으로, 바느질 기법에서 색 실누비와 구분된다. 색실누비는 담배쌈지, 부싯돌 주머니, 안경집 등 일상에 주로 필요한 소소한 소품들을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민간에서 나온 기법이기에 딱히 이름도 없어, '누비'나 '손누비'라 불렸다. 1998년 당시 복식문화연구원 유희경 원장이 처음으로 '색실누비'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 이후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

색 실 누비의 기원을 찾아서

색실누비는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기원이나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상용품으로 소비되었기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드물다. 그런데 강릉이 색실누비의 기원이라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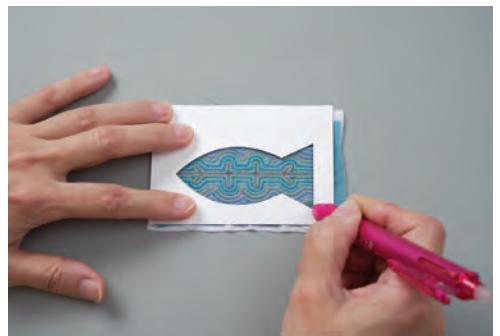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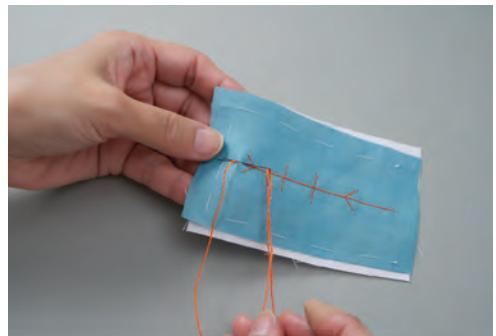
2009년 삼성문화재단이 발간한 〈문화와 나〉라는 계간지에 동양자수 박물관을 설립한 안영갑관장이 색실누비가 강릉 수보자기(강릉수보)처럼 강릉 지역의 독특한 누비 공예라 소개한 이후, 색실누비는 지역성이 구체화된 '강릉 색실누비'라고도 불린다. 안영갑관장은 오랜 수집 과정을 통해 유물의 수집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유물의 출처를 밝혀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말한다. 15년에 걸친 수집과 이후 7년에 걸친 조사 기간 동안 색실누비의 시발점이 강릉이며,

현재 수집가와 소장가들이 가지고 있는 색실누비의 원형이 강릉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릉수보의 소재와 색실 사용, 자수 도안과 구도 등이 색실누비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강릉수보의 소재인 바탕천은 당시 많이 생산 또는 수입되어 널리 보급된 기계적 면직물이다. 19세기 조선 왕조가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외국과 교역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 비단이나 값싼 일본 직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마찬가지로 강릉수보에 사용된 화려한 색실도 19세기 후반 조선 왕조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합성염료가 수입되었고, 조선 왕조가 붕괴되면서 색채에 대한 금제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아 서민들의 색채에 대한 향유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강릉수보는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가 특징이며 각 색의 경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특징은 색실누비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보아 강릉수보와 색실누비는 발생 시기와 사회 상황, 문화의 배경이 같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인 강원도는 따뜻한 누비옷을 많이 만들어 입었는데, 혼수로 누비옷을 직접 지어 가는 풍습이 있을 정도였다. 누비 기법에 익숙한 여인들이 색 다른 변형으로 색실누비를 궁리한 것은 아니었을까.

종이로 습기를 막고, 더욱 입체적인 장식으로

일반적인 누비는 보온성을 위해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고 누비지만, 색실누비는 한지를 넣는 게 특이하다. 옛날 허리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찰쌈지'라 했는데, 비가 오거나 땀을 많이 흘리면 몸에 차고 있던



색실누비의 기초

재료 명주, 광복, 한지 끈(면 끈), 명주실, 비늘, 연필, 방울솜

만드는 방법

1 명주와 광복을 마주 대고 시침한 뒤 원하는 모양을 그린다.

2 그린 문양을 따라 온박음질하고 시침실을 제거한다.

3 온박음질한 문양을 따라 끈을 넣고 박음질한다.

4 물고기 모양의 도안을 그려 자른 후 테두리에 바이어스를 댄다. ①~④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고기 모양을 한 장 더 만든다.

5 두 장의 물고리 모양을 마주 대고 공그르기한 뒤 방울솜을 넣는다. 마지막 테두리를 휘감치기해 완성한다.

색실누비에 대해 도움을 주신 이덕은 작가는 2018년 4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색실누비의 이름다움과 작품 세계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작품집 <색실로 한 줄 누벼 놓으면>을 출간했다.

색실누비 작품은 모두 이덕은 작가.
연보라색 화병과 오벌 플레이트는 모두 오선주 작가.



쌈지에 습기가 찰 수 있어서 소중한 물건은 한지에 싸서 보관하였다. 색실누비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여겨진다. 천과 천 사이에 넣는 한지 끈은 질기고 오래가며 통풍성과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담배나 부싯돌 등 습기가 차면 안 되는 것을 주로 보관하는 쌈지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소재의 특성을 이용한 옛 여인들의 지혜를 기우할 수 있다. 심지로 속에 들어가는 한지는 주로 얇은 것을 사용한다. 너무 두꺼운 것은 꼬아서 쓰기 힘들기 때문이다. 필요 한 문양의 간격에 맞춰 종이 두께를 조절한다. 박음질 속에 끼워 넣는 한지로 올록볼록한 무늬들은 더욱 입체감 있게 도드라지고 기하학적인 장식이 된다. 이처럼 한지를 넣고 누비는 방법은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기법이다.

색색의 반복이 만든 섭세한 아름다움

색실누비는 '끝없는 반복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한지를 얇게 꼬아놓은 다음 약간의 물풀을 발라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 시켜 한지 끈을 만든다. 천에 기본 도안선을 그리고 선을 따라 박음질 하여 겉감과 안감을 고정한 후, 박음질 선을 따라 겉감과 안감 사이에 한지 끈을 넣고 한 줄씩 누빈다. 천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에 한

지를 넣고 겹겹이 누벼나가는 것이다. 한지가 박음질 선에 잘 덧대어 지도록 엄지손가락이나 뾰족한 막대기로 눌러가며 바느질의 결을 따라 밀어 넣는다. 이렇게 한 줄을 박음질하는 데도 상당히 긴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 한땀 한땀이 한 줄 한 줄로, 그렇게 반복을 계속하면 어느새 다채로운 선이 이루는 문양이 나타난다. 색실누비는 -, 그드, +, ×, * 형을 기본선으로 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하여 누벼 장식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준다.

색실누비로 만든 문양이 보여주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은 현대의 미감과도 잘 통한다. 2018년 제4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색실누비색실첩'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덕은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색을 섬세한 바느질과 현대적인 감각으로 누볐다는 평을 듣는다.

손에 닿는 것 하나하나에 온 정성과 시간을 다해 아름답게 꾸미고 다듬는 태도. 그런 작은 노력들에는 어떤 기도가 깃들었을 터. 한땀씩 한 줄씩 누비며 기원한 바람과 소망들이 모여서 그 무엇보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삶이 되었을 것이다. S

참고 문헌

2017 <한국 전통 색실누비의 조형성과 기원 연구> 박경숙, 남경미 지음
2019 <강릉색실누비 유물에 관한 소고(小考)> 지수현 지음

간결하고 담백한 멋을 차리다 Creating a terse and simple beauty

하루 세 끼 밥상을 차려 내며 일상에서 가장 밀접하게 사용된 소반은 그만큼 다양한 종류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 나주반은 담담한 미감으로 '검이불루(儉而不陋,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다)'를 표현한 대표작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이종근



소반, 조선 시대

식사를 1인 1반에 차려내는 풍습 덕분에 조선에는 집집마다 소반이 많았다. 부유한 집은 백여 개가 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10여 개 이상의 소반은 있어야 했다. 옛사람들은 친한 손님은 물론 지나가던 길손이 들려도 식사를 후하게 대접할 만큼 든든하게 밥 먹는 것을 중히 여겼다. 음식을 차려 내는 소반이 다양하게 발전하며 용도와 모양, 지역에 따라 다채로운 종류로 남게 된 이유다. 조각과 소재 등으로 지역적 특색이 드러나는 독특한 소반을 만든 대표적인 소반 생산지는 나주, 통영, 해주다. 이 중 나주반은 상판 제작에서 다른 지역과 큰 차별점이 있다. 상의 면판과 테두리 부분인 변죽을 따로 제작해 결구한다는 점이다. 통영반과 해주반의 면판과 변죽을 하나의 나무로 깎아 만드는 것과 달리 나주반은 이들을 따로 제작하며 네 변뿐만 아니라 모서리 접히는 짧은 변이 있어 다각형 상판으로 돼 있다. 그 아래에는 간결하게 장식한 운각을 배치해 다리를 고정시키고, 다리 중간에는 '가락지'라는 중간대를 두어 힘을 받치게 했다. 도자기와 유기 소재의 그릇을 놓았을 때 하중을 견디게 하는 지혜다. 다리는 윗부분에서 아래부분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앎아지는 기동형이다. 안쪽 각도를 바깥쪽 보다 살짝 기울여 시각적인 안정감과 조형미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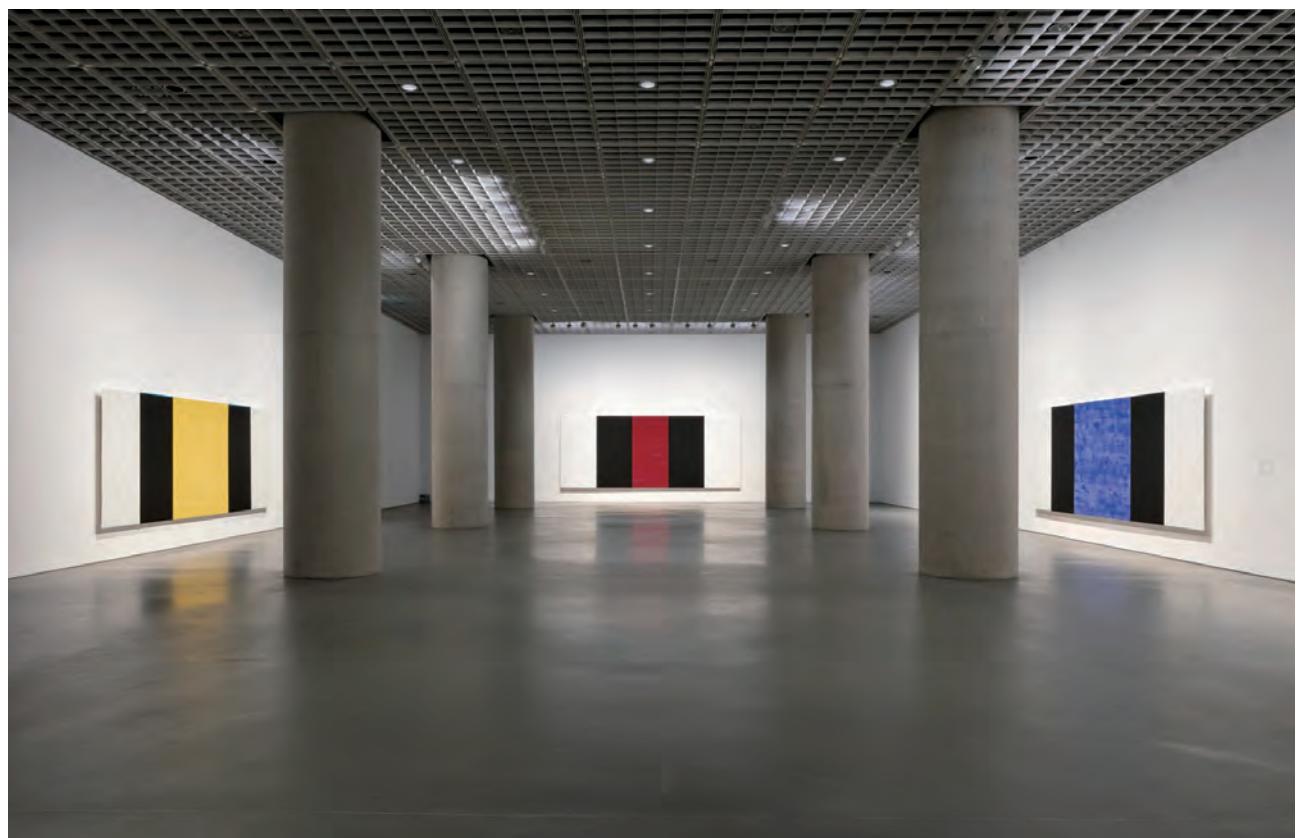
견고한 짜임과 간결한 미감을 지닌 나주반은 가구 디자이너 하지훈의 손길로 현대의 쓰임이 더해진 Ban으로 재탄생했다. 유구한 세월을 지나오며 검증된 결과물인 전통을 주제로 작업하는 것에 대해 빛진 마음이라는 작가는 전통에 동시대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그렇게 만들어진 Ban은 국가무형문화재 나주소반장 김춘식과 협업했으며, 상판을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면서 레이저 컷으로 투각해 당초 문양을 새겼다. 벽에 걸었을 때도 그 아름다움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Due to the practice of serving meals on these small, individual tables during the Joseon dynasty, wealthy families used over 100 soban, and even poor families had at least 10. The value of a hearty, well-set meal ruled supreme: it was considered an essential part of hospitality to give not only close friends but even passing travelers generous amounts of hot food. This is why,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its functions, soban vary widely by shape, region, and use. The cities most known for their production of soban with regionally-specific features (such as the material and carving design) were Naju, Tongyeong, and Haeju: of these, soban made in Naju (called "Najuban") were special in a number of ways. The process of crafting the table tops was the huge difference between those of other regions; the table top and frame (or byeonjuk, which formed the base and usually consisted of one piece) were created separately and then fitted together. Unlike soban crafted in Tongyeong and Haeju, for which the table top and frame were carved from a single tree, Najuban were made with wood from multiple trees. The table top, if rectangular, was cut diagonally at the four corners to create an angled look.

The sturdy woodwork and terse aesthetic of the Najuban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Ban series by furniture designer Ha Ji-hoon through modifications made to accommodate modern uses. Ha's Ban are made in collaboration with Master Kim Chun-sik, who specializes in Najuban and was designated a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Republic of Korea. With table tops made from aluminum that are angled via laser cutting and engraved with flower-and-vine designs, the Ban look beautiful even when hung on the wall.



Ban, 하지훈



구도하듯 담아낸 물체와 빛의 순간

메리 코스 : 빛을 담은 회화

캔버스 가득 명도가 살짝 다른 흰색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아니, 명도만 다른 것은 아니다. 모든 빛을 흡수하는 듯 매트한 질감의 흰색과 모든 빛을 반사하는 듯 반짝이는 금속성의 흰색이 제각기 존재한다. 다른 물성들이 나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 혼연하거나, 이질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이유진

빛과 색깔은 불가분의 관계다. 색깔을 ‘빛깔’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태양 광선의 여러 가지 길이의 파장은 우리가 인지하는 색의 근본이다. 우리는 시각을 통해 빛의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변화를 인지한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색채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찬란한 태양빛이 가득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메리 코스(Mary Corse)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빛을 탐구해온 아티스트다.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의 현대 미술 기획전 <메리 코스: 빛을 담은 회화>에서 그녀의 평생에 걸친 ‘빛의 회화’를 만나볼 수 있다.

그림에 담아내는 ‘물리적인’ 빛

회화에 빛이 담겨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찬란한 빛깔을 담아내는 거의 모든 그림에 화가가 인식한 빛이 존재한다. 하지만 메리 코스가 담아낸 빛은 조금 다르다. ‘물리적인 빛’ 자체가 그녀가 몰두한 예술적 주제이자 재료, 물두의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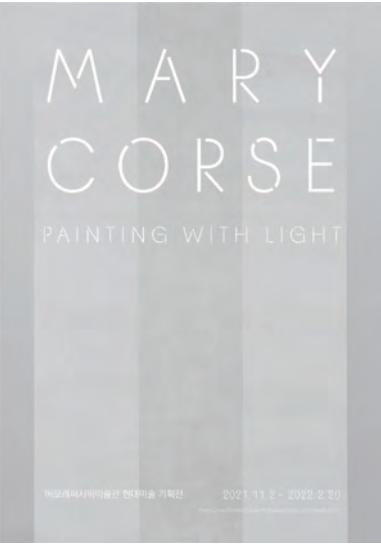
1945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출생한 메리 코스는 196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작가 세대의 일원으로 미술계에 등장했다. 추상화 작가로 시작해서 당시 미국 서부에서 일어난 ‘빛과 공간 미술 운동(Light and Space Movement)’을 이끈 몇 안 되는 여성 작가였다. ‘실제 빛을 그림에 넣고 싶다.’는 욕망이 오랜 기

간 그녀를 사로잡았다. 여타 작가들이 빛을 이용해 입체나 공간을 활용하는 작업을 펼쳤다면, 코스는 회화라는 작업 방식을 고수하며 빛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기 조명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 것인지 알기 위해 물리학 수업을 들었고, 직접 축전기를 다루기도 했다. 빛에 대한 매료는 마치 신념처럼, 그녀의 온 삶을 관통하며 다채로운 실험과 창작으로 이어졌다. 특히 1968년, 코스가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다 발견한 도로 위에서 빛나는 하얀 선은 회화에 빛을 담아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선물했다. 차선 도색에 사용하는 유리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한 ‘흰빛(White Light) 시리즈’는 곧 그녀의 대표작이 되었다.

한 눈에 살펴보는, 빛에 대한 몰입과 탐구의 역사

<메리 코스: 빛을 담은 회화>에서는 1960년대 중반 초기작부터 2021년 최신작까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대표작 총 34점을 선보인다. 여섯 개의 전시실은 ‘라이트 박스’, ‘흰빛 회화’, ‘색채 회화’, ‘검은 빛 회화’, ‘검은 흙’의 시리즈 별로 구성하여 작가의 다채로운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1전시실에서는 메리 코스의 대표작인 ‘흰빛 시리즈’가 전시된다. 이 시리즈는 1960년대 중반 변형 캔버스, 라이트 박스, 조각 작업을 거쳐 그녀의 작업이 다시 회화로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코스의 지속적인 빛에 대한 탐구는 1968년 유리 마이크로스피어를 물감에 혼합하는 방식



메리 코스: 빛을 담은 회화

장소 2021년 11월 2일~2022년 2월 20일
장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 1~7전시실
기간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24
홈페이지 apma.amorepacific.com



을 고안하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입사한 광원을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성질의 마이크로스피어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색의 위치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색과 질감을 만들어낸다. 흰색이 빛의 각도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로 변화하며 빛의 의미를 담아내는 ‘흰빛 시리즈’, 캔버스 내면에 공간을 형성하는 ‘내면의 띠 시리즈’, 실제 공간 속으로 확장한 조각 ‘무제(빛줄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몇 걸음옮기자 온통 흰빛으로 가득했던 공간에 강렬한 색이 더해진다. ‘색채 시리즈’와 ‘아치 시리지’가 펼쳐지는 2전시실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작품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제한했던 메리 코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사용한 ‘색채 회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흰빛을 구성하는 개별 색을 분리하여 하나의 색상을 선명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코스는 색채 물감과 유리 마이크로스피어를 섞어 단순히 색을 가진 그림이 아닌, 색을 빛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모든 색의 빛이 모이면 흰빛이 되듯, 순수하고 강렬한 색상의 ‘색채 회화’에는 흰빛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의지가 서려 있다.

한편, 1989년부터 시작된 ‘아치 시리즈’는 ‘흰빛 시리즈’에서 확장된 시

리즈로, 초기에는 흰색만을 사용하다 점차 검정색과 삼원색으로 확장되었다. 건축의 가장 기본 요소인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아치는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하거나 새로운 공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아치 시리즈’의 작품들은 관람객의 시선을 아치 안쪽으로 유도하여 물리적, 현상적, 구상적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빛 그 자체가 회화다

3전시실에서 열은 푸른색의 팔각형을 마주한다. 메리 코스가 쉬나르 미술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1964년에서 1965년 사이에 제작한 다각형 모노크롬 회화 중 하나다. 1964년작인 ‘파란색 팔각형’은 표면의 광택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제작되었다. 팔각형 모양의 캔버스에 파란색 아크릴 물감과 금속 조각을 혼합하여 채색한 것으로, 이후 코스는 색을 배제하며 빛을 담는 방향으로선회한다.

4전시실에는 2019년 라이트 박스 작업인 ‘무제(전기 빛)’이 설치되어 있다. 1966년에서 1968년까지 그녀는 물감이 아닌 전기로 회화를 제

작, ‘빛 회화’로 칭한 바 있다. 이는 빛 자체가 회화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객관적인 진실을 담아내고자 라이트 박스 작업을 구상한 작가는 작품 제작을 위해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물리학 수업을 수강했고, 그곳에서 비선형의 개념을 배웠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후 모든 인간의 경험과 인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다시 회화로 돌아왔고, 그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흰빛 시리즈’가 나오게 된 것.

5전시실에서는 ‘검은빛 시리즈’가 펼쳐진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유리 마이크로스피어의 특성으로 캔버스에 빛을 담아냈던 메리 코스는 1973년부터 검은색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검은빛 시리즈’에서는 검은색 아크릴 물감에 사각 아크릴 조각과 유리 마이크로스피어를 혼합, 채색함으로써 빛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반짝이는 표면을 만들었다. 마치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하고 있음을 전달하듯, 화려하게 빛나는 표면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연상하게 하면서 아득한 거리감을 이룬다.

6전시실에서 또 다른 검은색 표면이 ‘검은흙 시리즈’를 만난다. 가죽을

꾸린 코스는 캘리포니아 외곽 산악지대인 토팡가로 이주해 새로운 작업 환경을 마주하였다. ‘흰빛 시리즈’로 빛의 가변성을 탐구했다면, ‘검은흙 시리즈’에서는 그녀 자신이 현재 서 있는 땅에 집중한다. 작가는 본인의 집 근처 언덕에 위치한 암석의 표면을 쟁고로 본뜨고 다시 점토로 찍어낸 다음 가마에 구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검은색 정사각형 타일은 특유의 광택과 질감을 갖게 되었다. 이 타일 여덟 개를 그리드 형태로 벽면에 설치한 ‘검은흙 시리즈’는 지면의 수평적인 지형을 벽면의 수직적인 회화로 변환함으로써 우리의 인식을 전복시킨다. 그리고 땅의, 지형의 고유한 생동감이 꿈틀거리는 검은색 광택이 예측 불가한 의미와 형태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빛은 자체의 내재된 에너지입니다. 저는 그 빛과 작업합니다.”

〈메리 코스: 빛을 담은 회화〉의 모든 전시 작품을 마주하면서, 그녀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른다. 무언가에 몰입하여 삶 전체를 통하여 그것을 연구하고 알고자 하는 것. 구도자의 삶과도 같은 그 궤적을 따라가는, 어느 오후의 짧은 시간엔 그 어느 때보다 활하고 따뜻한 빛이 함께했다. S



형태 너머, 무궁한 감각의 세계

건축가 최욱

갈증에 친물 한 잔을 따라 마신다. '꼴깍꼴깍'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가득한 순간. 잔에 닿는 입술의 감촉부터 물의 청량한 기운과 맛, 손끝에 느껴지는 옅은 촉촉함까지 모든 감각이 기록된다. 단지 물을 마시는 행위에도,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난다.

글 민소연 사진 이유진

서대문에 있는 원오원아키텍츠를 찾은 날은 절정에 올랐던 올해의 단풍이 앞다투어 추락하며 휘날리기 시작한 때였다. 가을의 끝이자 겨울의 시작. 건축 사무소 건물에 들어서자 낙엽 때문인지 어수선한 거리의 공기가 문 뒤로 물러났다. 적당한 온기와 함께 고요가 감싼다. 최욱 건축가가 운영하는 원오원아키텍츠는 건축을 기반으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그 차분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무엇인가에 몰두해 있었다.

최욱 소장의 대표작으로는 학고재 갤러리,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 아모레퍼시픽 설록 티하우스(제주) 등이 꼽히고, 최근 두 번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인 '설화수 북촌'의 건축을 맡았다. 한국적 미감을 현대와 도시의 감각에 자연스럽게 침투시키는 최욱 소장의 프로젝트는 늘 많은 이의 찬탄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최욱 소장이 애장품으로 내놓은 것은 작은 유리잔 두 개와 형태가 찌그러진 막사발이었다. 잔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그가, 그중에서도 가장 애호하는 잔이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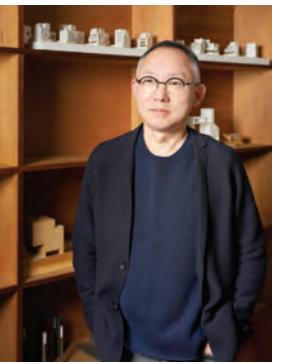
"이 투명한 잔은 랄리크 잔(lalique glass)이에요. 르네 랄리크(René Jules Lalique)는 아르누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인이죠. 큰 것이 1918년에, 작은 것이 1926년에 제작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이 잔들을 20년 전에 샀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잔이라 하면 그저 모양(형태)이었어요. 그런데 이 잔에 위스키를 따르면, 우선 그 위스키가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빛이 주변에 비치면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죠. 그리고 적당한 무게를 갖고 있어서 잔이 입으로 오는 시간이 약간 길어집니다. 그 사이에 향이 먼저 코로 도착하고, 술의 맛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잔이 입술에 닿는 립(lip) 부분이 무척 얕으면서도 날카

롭지 않고 둥글죠. 랄리크 잔으로 하게 된 그 경험들이, 하나의 잔이라는 게 '형태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잘 고려된 만듦새를 지니는구나.'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잔을 모으기 시작했죠."

최욱 소장이 내놓은 랄리크 잔은 그의 말처럼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으며 오랜 나이가 무색하게도 투명하게 반짝였다. 잔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어떤 건物의 순간보다 맑다.

"그리고 이 잔은 조선 시대나 더 이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형태가 찌그러졌죠. 아마도 도공이 가마에 넣고 굽는데, 옆에 있는 하나가 넘어져 이것까지 일그러졌거나 하는 사정이겠죠. 그런데 이 실apse작을 어떤 이유에선지 살려서 오래 간직해온 것 같아요. 이가 나간 곳은 금으로 때문 흔적도 보여요. 굉장히 귀중하게 다룬 것 같지요. 이 잔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형태 자체도 지극히 인위적이지 않아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랄리크 잔과 마찬가지로 이 잔 역시 아름다운 형태뿐 아니라 모든 감성의 감각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형태를 넘어서 미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잔들 모두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집을 짓는 직업. 최욱 소장의 애장품 이야기를 들으며 건축가는 대상에서 그 이상의 세계를 발견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이 그 세계가 되는 것. 그가 친애하는 잔들이 주는 아름다운 오감을 온몸과 온사고로 받아들였듯 말이다. S



유리의 영롱한 매력

물처럼 투명하고, 때로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유리는 공간을 영롱한 빛으로 채워준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김잔디



푸른 색이 신비로운 유리 매듭으로
문진이나 북엔드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 오브제는 헤이 by 리빈.



유리 블로잉 기법으로 일몰의 풍경을
표현한 화병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빛에
따라 다채로운 색감을 뿜어낸다.
김준용 작가 by 솔루나리빙.



주춧돌의 의미로 경기도 포천에서
나오는 포천석을 밤침으로 사용하고
꽃이 담기는 화병은 유리로 구성한
'제자리 02'는 스튜디오 유릴리
by 오브제후드.

반짝이는 유리는 투명한 물성 덕에 예로부터 보석과 같은 귀한 대접을 받았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팔찌나 귀걸이 등의 장신구로 사용되고 왕릉에서 유리그릇이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왕이 사용하던 귀중품이었다. 재료도 귀하거니와 1000도가 넘는 열기를 만들어야 맑고 영롱한 자태를 드러내기에 쉽게 향유할 수 없었다. 유리를 제대로 다루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까다롭지만 유리공예가들의 무한한 시도와 노력으로 이제는 일상의 식기부터 예술 오브제까지 다채로운 유리를 곁에 둘 수 있다.

입으로 불어서 형태를 만드는 블로잉 기법을 통해 탄생하는 유리는 맑은 수채화처럼 빛이 투과되어 크기가 큰 화병이나 조명으로 사용하면 유난히 멋지다. 각양각색의 컬러가 더해진 유리는 공간에 생기를 더하고 콘크리트와 나무, 돌 등 다양한 소재와 결합하면 깨지기 쉬운 유리가 견고함을 갖추게 된다. S



달ή아리의 절반은 백자로
반은 푸른 유리로 완성한
'Skybluemoon'은 강민성 작가.



벼려진 유리병을 가공해 아름다운
형태와 색을 품은 화병으로
재탄생시켰다. 박선민 작가
by KCDF숍.



노을이 드리운 낙동강의 컬러를
추출해 일곱 번의 옻칠로 표면을
마감한 유리 화병은 본즈
by 오브제후드.



블로잉 기법으로 하나하나 제작한
유리컵에 부드럽고 따뜻한 컬러의
옻칠을 입힌 컵은 정은진 작가
by 라운디드.



빛을 담는 유리의 물성에 착안해
다채로운 컬러의 유리 테이블웨어를
선보이는 김은주 작가의 사각 잡은
접시는 KCDF숍.



유리의 투명함과 옻칠의 깊은
색감을 결합한 유리 칠기 컵.
보색의 대조가 이롭답고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다. 정은진 작가.



겹겹으로 일곱 장의 유리 크리운이 쌓여
빛을 편안하고 우아하게 조절해준다.
아름다운 조명을 만드는 루이스풀센의
작품으로 1928년 덴마크 장식 예술
박물관에 프로토타입으로 처음
전시되었다. 친블랑.



정형적인 형태를 탈피하고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고자 블로잉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양유완 작가의 작품
'운해Unhae'는 YÉOL.



원석처럼 영롱하고 오묘한 매력의 주얼
인센스 홀더는 맑고 선명한 컬러와
스틱 향의 연기가 어우러져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오유 by 서울번드.

자연의 정취를 취하다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은 자연이다. 대나무, 삼베, 한지 등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손으로 엮고 꺾어 완성하는 공예품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김잔디



얇게 저민 대나무에 색을 물들여 다양한 문양으로 엮어내는 채상 비구니에 부드러운 삼베로 이너백을 구성했다.
서신정 by 솔루나리빙.



바다의 소리를 들려주는 소라 껍질을 상상하며 만든 결 고운 브로치다. 전통 조각보의 꼬집기 기법으로 곡선과 입체감을 살리고 춘포, 추포, 모시, 삼베 등 자연 소재를 이용했다. 정혜정 작가 by KCDF숍.



검은 대나무 특유의 얼룩무늬와 대나무의 탄성, 마디 등 소재의 특성을 잘 활용해 매듭을 짓듯이 표현한 대오리 브로치 리데프비 by KCDF숍.

자연은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이자 삶을 어루만지는 위로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아름다움 삶을 영위하는 것이 화두로 떠오른 요즘, 입고 꾸미는 데에도 자연의 미학을 담으려 애쓴다. 지구를 해치지 않는 착한 물성의 천연 소재는 사용하고 만드는 사람에게도 친절하다. 일단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부터 나무와 종이, 천연 열매와 섬유 등으로 무궁무진하다.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 디자인과 색상, 문양 등을 다채롭게 표현한 것도 특징이다. 자연이 빛어낸 예술적 감각과 멋은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정취도 담긴다. 인위적이지 않는 것에 주는 위안과 가공하지 않은 것의 순수함은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이미 그 자체로 작품이다.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며 공예가와 예술가와 디자이너에게 영감의 원천이었던 자연은 산업화에 그 위상이 밀렸다가 요즘 다시 각광 받고 있다. 최근 수년 간 특허청에 자연 모티브 디자인 출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소식도 반갑다. S



인도로 대나무 겉면을 지져서 글씨와 그림을 새기는 '낙죽' 장식을 한 얼레빗은 낙죽장 김기찬 작품 by 해브빈서울.



깊은 산속 열매를 상상하며 만든 컬러와 자연 소재 조합이 사랑스러운 브러치는 랑랑.



한지 재료인 닥나무를 원료로 만든 친환경 비건 가죽으로 만든 호보백은 페리토.



종이를 말아 염료에 염색한 뒤 떨어진 나뭇잎을 표현해 온 테두리에 담은 귀걸이는 이영주 작가 by KCDF숍.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인 말총을 사용해 섬세한 기술력과 집요한 정연정신으로 엮은 목걸이는 정다혜 작가.



귀한 천연 섬유로 손꼽히는 함창 명주를 사용해 소중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한 투박이 둥근 주머니는 정현지 작가 by twl.



대나무 살에 고운 보라색을 물들여 비구니를 짜고 그 위에 보라색으로 물들인 모시 주머니를 덧대 가방을 완성했다. 서신정 by ddp디자인스토어.



오죽 특유의 멋스러운 문양을 그대로 살려 은반지에 올린 오죽 피라미드 반지는 리데프비 by KCDF숍.



제주의 산과 오름, 바다와 바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손바느질로 담은 장신구 '삼승 브로치'는 바농뱅뒤 by KCDF숍.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윤조 라인



윤조에센스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60ml | 97,000원대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 (LTD)

에센셜 컴포트 라인



윤조마스크
자연단™을 미세망 코튼 시트에 담아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자음수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진정 보습 스킨
150ml | 68,000원대

자음유액
건조하고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꿔주는
진정 보습 로션
125ml | 72,000원대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알맞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탄력크림
피부 탄성력을 강화해 매끄럽고
弹性的 피부로 가꿔주는 저자극
수분 탄력 크림
50ml | 90,000원대

수분크림
피부에 깊은 수분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산뜻한 젤 타입의 수분
진정 크림
50ml | 80,000원대

윤조 퍼펙팅 라인



윤조에센스 퍼펙팅
Youth Master Technology로
피부 장벽을 다각도로 케어해
더 힘 있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필수 인티에이징 부스터
90ml | 130,000원대
120ml | 160,000원대 (LTD)

자음생 퍼펙팅 라인



자음수 퍼펙팅
진세노믹스™와 천근황
주출물이 피부 자생력을 기워
속부터 촉촉하게 차오르는
탄력을 선사하고 노화의 흔적을
개선하는 인상 | 인티에이징 크림
90ml | 250,000원대

에센셜 퍼펙팅 라인



자음유액 퍼펙팅
보습감에 영양성분을
더해 촉촉한 힘을 높이고
오래 유지하도록
기구어주는 영양 보습
케어 스킨
150ml | 68,000원대

진설명작 라인



탄력영양크림
자음영단™과 맥문동 추출물이
피부를 자지하는 힘을 높이고
전체에 꽉 찬 보습으로
속령감까지 차아해주는
시계걸용 수분영양크림
50ml | 70,000원대

자음생 라인



자음생수EX
활성 부티 사포닌
GINSEONICS™의
피부 자생력으로 탄탄한
피부를 가꿔주는 탄력
인티에이징 스킨
150ml | 100,000원대



자음생아이크림
농축된 인상 에-제이를 담은
미세 캡슐 진세노스피어™가
꽉 친 듯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를
선사하는 인상 캡슐 에센스
50ml | 200,000원대



자음생크림 소프트
활성 부티 사포닌
GINSEONICS™의
피부 자생력으로 탄탄한
피부를 가꿔주는 탄력
인티에이징 로션
60ml | 150,000원대



자음생크림 클래식
활성 부티 사포닌
GINSEONICS™의
피부 자생력으로 더욱 강력해진
3종 탄력 인티에이징 크림
30ml | 150,000원대

설린 라인



설린워터에센스
매끈하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주는
저자극 투명케어 워터에센스
150ml | 100,000원대



설린세럼EX
비타민 유도체 3%의 항산화력으로 촉촉하고
탕글한 피부로 가꿔주는 저자극 아이크림
50ml | 150,000원대



설린아이크림EX
비타민을 험유해 매끄럽고 화사한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저자극 결개어 세럼
20ml | 100,000원대



설린크림EX
세리마이드를 활용해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저자극 결개어 크림
50ml | 800,000원대

자정 라인



자정클렌징폼
백토 성분이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자정수
자천 피부를 정돈해주고 미백 효능을
끌어올리는 젤 타입 브라이트닝 스키н
125ml | 65,000원대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연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꿔주는
브라이트닝 로션
125ml | 70,000원대



자정미백에센스
백색 미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 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진설 라인



진설클렌징폼
진한 거품이 개운한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 폼
150ml | 60,000원대



진설수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적술에
간강하고 생분을 더해 피부에
길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스키ن
125ml | 125,000원대



진설에센스
강간한 적술과 진구한 신양삼
생분을 더해 탄력, 생기, 주름을
다각도로 개선해주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80,000원대



진설유액
피부 생�력을 강화하는 적술에
해송자유 성분을 더해 윤탁하고
매끄러운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한방 인티에이징 에멀젼
125ml | 140,000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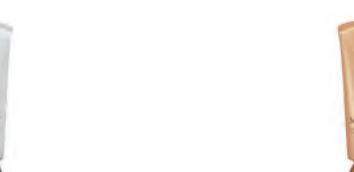
옵션 라인



진설패
고온 클렌징은 물론
예민한 피부까지 달랠 수 있는
촉촉한 하루 클레이 마스크
120ml | 52,000원대



옥팩
목은 깊은 노폐물을 속 시원히 빼어내 주는 필오프 마스크
150ml | 48,000원대



백삼팩
백삼 성분이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사워하면서 스크럽과 마스크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케어 백삼 마스크
120ml | 72,000원대



여윤팩
크림처럼 비르고 자기만 하면 다음 날 윤기와
되살아나는 편리한 슬리밍 마스크
120ml | 58,000원대

바디 & 헤어



트래블 키트 백은향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름은
이름은 향과 성분의 풍미를
일깨워 감각적인 탐험을 선사하는 헤어 트래블 키트
50ml × 4 | 55,000원대



동백윤모일
자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유클
100ml | 35,000원대



핸드크림(● 백은향, ● 금윤향)
귀한 향기 오일과 고급 향기
를 조화롭게 섞어낸 매력적인
향기로 가볍게 해주는 핸드크림
40ml | 30,000원대



바디워시 백은향
매화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향기 기분을
맑게 해주고, 부드럽게 물을 감싸 피부에
보습과 탄력 유통을 선사하는 바디로션
250ml | 60,000원대

스페셜 라인

클렌징 라인

MEN

립

퍼펙팅 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익스클루시브

제품 목록 및 설명은 이미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자음생크림 소프트(3명)

활성 뷰티 시포닌 진세노믹스™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능을 담아 채우고, 세우고, 당기는 3중 탄력을 실현하는 안티에이징 크림입니다. 피부 자생력을 키워 외부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탄력을 선사하고, 바르는 순간 부드럽게 일착됩니다. 산뜻한 제형에 인삼꽃 향이 담긴 자음생크림 소프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응모 마감 2022년 2월 10일까지

증정 선물 자음생크림 소프트

당첨자 발표 99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21년 97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진설 세럼 쿠션(3명)

김상숙 부산시 진구 가야공원로
이현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이대로
진현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진설 세럼 파운데이션(3명)

김상숙 부산시 진구 가야공원로
김은희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
지선애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READER'S REVIEW



눈부시게 황홀한 빛을 머금다

고급스러운 내용이 설화수의 품격을 나타내주는 듯 합니다.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더 효율적인 사용방법들을 티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은희



자연을 조화롭게 버무린 밥상

설화보감의 음식 회보 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영양을 해치지 않고 고스란히 섭취하는 마кро비오틱과 예전부터 친숙한 개념인 약식동원과 연결점이 있다니 상식의 폭까지 넓혔네요. – 이현정

Special Gift

업서를 보내주신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봉합엽서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7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SEPHORA

세포라 파르나스몰점 02-3453-1083
세포라 롯데영플리자점 02-779-9332
세포라 롯데월드점 02-3213-4694

백화점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8-3116
롯데백화점 김포점 02-6116-3150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캘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인천광역시, 경기도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032-242-2139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롯데백화점 충동점 032-320-7135
현대백화점 종동점 032-623-2136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현대백화점 칸테스점 031-822-3140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901
캘러리아백화점 광교점 031-5174-7141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대구백화점 프리자점 053-426-6036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롯데백화점 삼인점 053-258-3106w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5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뉴코아이몰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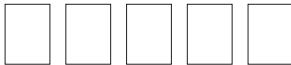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캘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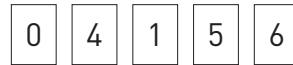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편치다

설화지혜(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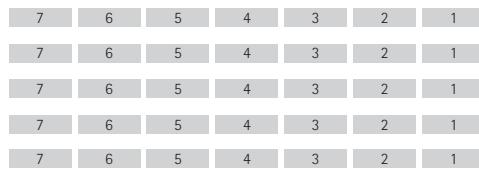
피부 섬기기(12p)

공간미감(16p)

새 장인을 만나다(24p)

아름다움은 자란다(30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2. 누리다

설화인(38p)

어우러지다(4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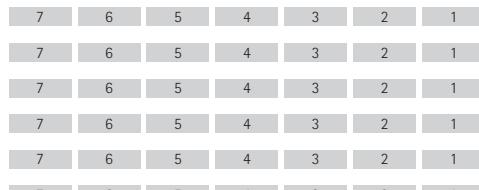
설화풍경(52p)

설화보감(56p)

아름다운 기행(62p)

설화수를 말하다(68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3. 익히다

배움의 기쁨(78p)

한국의 멋(8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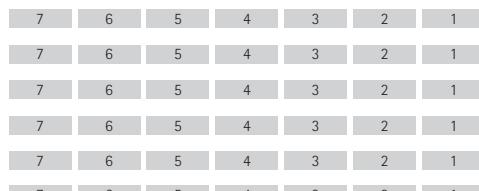
읽다(84p)

설화애장(88p)

집 안 단장(90p)

몸 단장(92p)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선물에 당첨되면 보내드릴 정보를 적어주세요.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신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98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2월 10일입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로서 추첨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로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로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고객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기아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충청도

엠백화점 춘천점	033-257-4129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롯데 김포공항 면세점	02-2669-6730
롯데 명동 면세점	02-759-6662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02-3213-3865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84-9655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793-1932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신라 장충 면세점	02-2230-3597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4488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부띠끄	032-743-2151
신라 인천공항 면세점 T2	032-743-2168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7324
신라 제주공항 면세점	064-720-0055
HDC 신라 용산 면세점	02-490-0351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10
신세계 강남 면세점	02-6288-0767
신세계 센텀 면세점	051-775-3141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84
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텁승동	032-743-5784
시티플러스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5718
에스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032-743-6567
에스엠 인사 면세점	02-2120-6210.9
그랜드 인천공항 면세점	032-743-0543
동화 광화문 면세점	02-399-3123
한화 여의도 면세점	02-2136-2779
현대 무역센터 면세점	02-2142-6220
현대 동대문 면세점	02-3668-8124

